2015. 8

섬유패션산업 동향

Textile & Fashion Trend report

섬유패션산업 동향

우리 연합회에서는 국내외 섬유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분석을 위해 섬유패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업종별, 지역별 최신 동향자료를 집필하여 섬유패션 업계, 학계, 단체, 정부,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분기로 제작(자료는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하며,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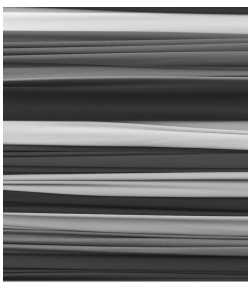
Tel) 02-528-4025 Fax) 02-528-4070 E-mail) gjung@kofoti.or.kr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kofoti.or.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볼 수 있습니다.

Textile & Fashion Trend report

Contents

2015. 8



섬유패션산업 동향

1. 섬유류 수출입 동향 ····· 01
2. 섬유산업 수급 동향 ····· 07
3. 외환·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 11

업종별(지역별) 동향

원 사
- 면방산업 동향 ····· 15
- 화섬산업 동향 ····· 19
- 모방산업 동향 ····· 26

직 물
- 직물류 수출입 동향 ····· 30
- 패션칼라산업 동향 ····· 33
- 대구경북 섬유업계 동향 ····· 36
- 경기북부 섬유업계 동향 ····· 41
- 대전충남 섬유업계 동향 ····· 44

의 류
- 의류·봉제산업 동향 ····· 47

섬유패션산업 주요이슈

- 저가 의류브랜드, 러시아 시장 진입 확대 ····· 52

섬유광장

섬유패션산업 FTA 코너

-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검증 ····· 55

섬유패션산업 유통 동향

- 최고의 패션 미디어 인스타그램 ····· 59

유관기관 섬유산업 리포트 ····· 64

1. 르네상스를 맞은 美 섬유산업 ····· 64
2. 美 의류·가정용품 업계에서 '윤리적 생산'이 트렌드로 부상 ····· 67

섬유패션산업 단신 ····· 74

참고자료

- 섬유패션산업관련 단체 현황 ····· 80

섬유패션산업 동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 섬유류 수출입 동향

□ '15년 상반기 수출 10.0% 감소, 수입 1.2% 증가(전년동기대비)

○ '15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10.0% 감소한 7,209백만불, 수입은 1.2% 증가한 6,463백만불로 무역수지 746백만불 흑자 기록

- 중국의 수출 감소, 수출단가 하락, 해외소싱 확대, 환율 영향 등으로 '15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이 감소

- 섬유원료 및 섬유사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섬유직물, 섬유제품의 수입 증가로 섬유류 수입은 소폭 증가

○ '15년 6월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한 1,275백만불, 수입은 2.3% 증가한 1,006 백만불, 무역수지 269백만불 흑자 기록

<섬유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류 수출액	15,936	1,508	1,413	1,359	8,010	1,399	1,203	1,275	7,209
(증감률)	(-0.1)	(5.3)	(-6.0)	(1.5)	(1.0)	(-7.2)	(-14.9)	(-6.2)	(-10.0)
제조업수출액	572,665	50,267	47,577	47,828	283,208	46,238	42,332	46,676	268,698
(증감률)	(2.3)	(8.9)	(-1.5)	2.4	(2.4)	(-8.0)	(-11.0)	(-2.4)	(-5.1)
섬유류 수입액	14,658	1,179	930	983	6,388	1,150	886	1,006	6,463
(증감률)	(8.4)	(7.6)	(-1.0)	(13.7)	(8.5)	(-2.4)	(-4.7)	(2.3)	(1.2)
제조업수입액	525,515	45,873	42,607	42,476	263,323	37,734	36,066	36,699	222,356
(증감률)	(1.9)	(5.1)	(0.5)	(4.3)	(2.7)	(-17.7)	(-15.4)	(-13.6)	(-15.6)
섬유류 무역수지	1,278	329	483	375	1,622	249	317	269	746
제조업 무역수지	47,150	4,394	4,970	5,352	19,885	8,504	6,266	9,977	46,3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이며 달러기준 계산 수치임

□ 품목별 수출: '15년 상반기 섬유원료,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제품 전품목 감소

○ '15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의 경우 섬유원료는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한 591백만불, 섬유사는 10.4% 감소한 746백만불, 섬유직물은 10.3% 감소한 4,227백만불, 섬유제품은 6.8% 줄어든 1,644백만불을 기록

- 섬유원료의 수출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출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액이 감소했고, 인조섬유, 재생섬유, 인조장섬유사, 천연섬유사 등 모든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

  * 섬유원료 수출품목(백만불, 증감률): 인조섬유(566, △12.5%), 재생섬유(25, △55.1%)
  * 섬유사 수출품목(백만불, 증감률): 인조섬유장섬유사(547, △6.3%), 천연섬유사(148, △16.6%), 인조섬유방적사(51, △27.9%)

- 섬유직물은 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감소했고, 섬유제품은 의류, 기타섬유제품의 수출이 감소

  * 섬유직물 수출품목(백만불, 증감률): 편직물(1,781, △9.7%), 인조장섬유직물(1,062, △12.8%), 기타직물(963, △9.5%), 면직물(193, △5.2%), 인조단섬유직물(168, △10.8%)
  * 섬유제품 수출품목(백만불, 증감률): 의류(942, △5.0%), 기타섬유제품(702, △9.1%)

○ '15년 6월 품목별 수출은 인조섬유, 인조장섬유사, 면사 등 섬유사 수출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편직물과 인조장섬유직물 등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폭은 둔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원료	1,413	125	110	121	703	107	94	100	591
(증감률)	(-1.5)	(1.7)	(-9.7)	(10.6)	(0.2)	(-14.4)	(-14.1)	(-17.5)	(-15.9)
섬유사	1,644	152	143	139	833	138	119	126	746
(증감률)	(-4.6)	(-4.2)	(-9.2)	(1.0)	(-5.5)	(-9.0)	(-17.1)	(-8.9)	(-10.4)
섬유직물	9,262	904	857	779	4,711	844	711	742	4,227
(증감률)	(-1.1)	(4.0)	(-6.4)	(-1.7)	(-0.2)	(-6.6)	(-17.1)	(-4.8)	(-10.3)
섬유제품	3,617	327	303	320	1,763	310	280	306	1,644
(증감률)	(5.5)	(16.0)	(-1.9)	(6.9)	(8.5)	(-5.4)	(-7.7)	(-4.2)	(-6.8)
합 계 (증감률)	15,936 (-0.1)	1,508 (5.3)	1,413 (-6.0)	1,359 (1.5)	8,010 (1.0)	1,399 (-7.2)	1,203 (-14.9)	1,275 (-6.2)	7,209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4 섬유류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15년 상반기 수출물량은 섬유직물, 섬유제품의 수출물량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5% 줄어든 1,321.4천톤, 수출단가는 6.8% 감소한 5.5불/kg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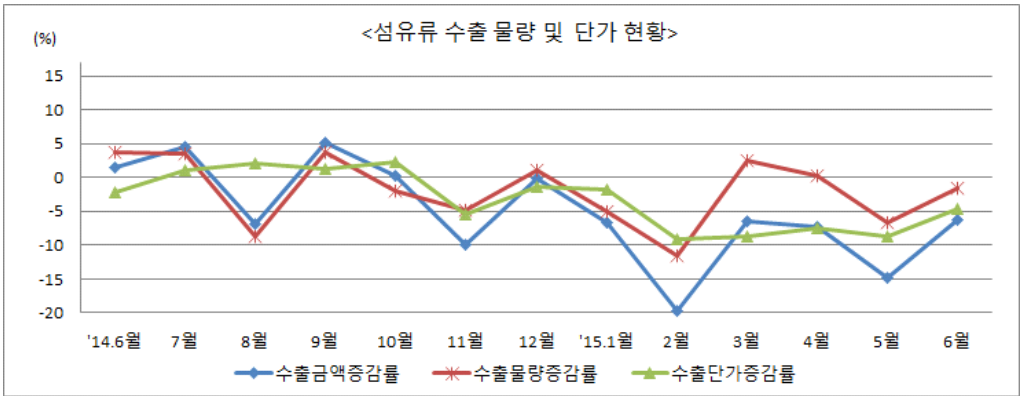
- '15년 6월 수출물량은 섬유원료, 섬유직물, 섬유제품의 물량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226.0천톤, 수출단가는 4.6% 줄어든 5.6불/kg을 기록

<섬유류 수출물량 및 단가 현황>

(단위 : 천톤, 불/Kg,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수출물량	2,733.7	255.2	228.6	229.8	1,369.1	255.7	213.4	226.0	1,321.4
(증감률)	(-0.4)	(4.0)	(-7.3)	(3.7)	(0.5)	(0.2)	(-6.6)	(-1.6)	(-3.5)
수출단가	5.8	5.9	6.2	5.9	5.9	5.5	5.6	5.6	5.5
(증감률)	(0.2)	(1.2)	(1.4)	(-2.1)	(0.6)	(-7.4)	(-8.8)	(-4.6)	(-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4 섬유류 기준), 분기별 수출단가(누계평균),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국가별 수출: '15년 상반기 베트남, 중국, EU, 인니, 일본 등 감소

○ '15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소폭 늘었으나, 중국, 인니 등으로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환율 영향 등으로 일본, EU, 중동 수출도 크게 감소

- 베트남의 경우 섬유제품(5.9%)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섬유원료(△3.1%), 섬유사(△10.1%), 섬유직물(△4.0%)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1,319백만불을 기록

- 중국의 경우는 섬유원료(△28.1%), 섬유사(△6.0%), 섬유직물(△16.8%), 섬유제품(△2.1%) 등 모든 품목의 수출이 줄면서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한 1,081백만불을 기록

○ ‘15년 6월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 일본, EU, 중동지역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베트남으로 수출이 늘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3개월만에 증가

<섬유류 주요국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국 가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베트남	2,734	266	266	254	1,352	266	243	262	1,319
(증감률)	(9.2)	(20.4)	(5.2)	(8.5)	(12.1)	(0.2)	(-8.5)	(3.2)	(-2.5)
중국	2,515	237	226	219	1,253	209	183	197	1,081
(증감률)	(-7.9)	(-5.6)	(-11.8)	(-9.2)	(-5.9)	(-11.6)	(-19.3)	(-9.9)	(-13.7)
EU	1,536	148	131	125	801	127	108	113	662
(증감률)	(3.3)	(15.0)	(1.1)	(11.6)	(10.4)	(-14.6)	(-18.2)	(-9.8)	(-17.5)
미국	1,433	125	117	123	699	122	113	129	700
(증감률)	(1.4)	(4.0)	(-9.3)	(1.9)	(-0.6)	(-2.2)	(-4.0)	(4.3)	(0.1)
인니	1,340	124	122	99	677	116	94	88	588
(증감률)	(1.1)	(5.5)	(-2.9)	(-6.2)	(-1.3)	(-6.3)	(-23.3)	(-11.5)	(-13.2)
일본	867	81	72	72	457	75	60	60	388
(증감률)	(5.2)	(15.1)	(7.3)	(15.0)	(14.1)	(-6.4)	(-17.9)	(-17.1)	(-15.2)
합 계	15,936	1,508	1,413	1,359	8,010	1,399	1,203	1,275	7,209
(증감률)	(-0.1)	(5.3)	(-6.0)	(1.5)	(1.0)	(-7.2)	(-14.9)	(-6.2)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4 섬유류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품목별 수입: ‘15년 상반기 섬유원료, 섬유사 감소, 섬유직물, 섬유제품 증가

○ ‘15년 상반기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섬유원료는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한 98백만불, 섬유사는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970백만불을 기록한 반면, 섬유직물은 1.6% 증가한 923백만불, 섬유제품은 3.1% 늘어난 4,472백만불을 기록

- 내수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섬유원료, 섬유사의 수입은 감소

  * 섬유원료 수입품목(백만불, 증감률): 재생섬유(63, △13.5%), 인조섬유(35, △1.1%)
  * 섬유사 수입품목(백만불, 증감률): 인조섬유장섬유사(460, △7.0%), 천연섬유사(312, △2.3%), 인조섬유방적사(198, △10.8%)

- 섬유직물은 기타직물, 인조단섬유직물 등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섬유제품은 의류, 기타섬유제품의 수입이 증가

  * 섬유직물 수입품목(백만불, 증감률): 기타직물(400, 7.0%), 인조단섬유직물(97, 0.8%), 면직물(210, △3.8%), 인조장섬유직물(105, △3.4%), 편직물(54, △3.2%)
  * 섬유제품 수입품목(백만불, 증감률): 의류(3,375, 3.5%), 기타섬유제품(1,097, 2.2%)

○ ‘15년 6월 품목별 수입은 최대 수입 품목인 의류와 기타섬유제품(직물제 가방, 침구이불 등)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인조장섬유사, 면직물 등의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원료	223	18	18	16	108	18	14	16	98
(증감률)	(-4.1)	(-23.1)	(-13.1)	(-14.8)	(-11.3)	(0.8)	(-25.2)	(-0.9)	(-9.4)
섬유사	2,091	191	169	176	1,036	177	159	168	970
(증감률)	(-1.8)	(-0.7)	(-12.1)	(6.0)	(-2.8)	(-7.4)	(-6.3)	(-4.2)	(-6.4)
섬유직물	1,866	165	157	167	908	172	150	168	923
(증감률)	(4.2)	(6.4)	(-1.9)	(17.1)	(5.5)	(4.7)	(-4.4)	(1.0)	(1.6)
섬유제품	10,477	805	586	625	4,336	783	564	653	4,472
(증감률)	(11.9)	(11.1)	(3.4)	(16.2)	(13.0)	(-2.8)	(-3.7)	(4.6)	(3.1)
합 계	14,658	1,179	930	983	6,388	1,150	886	1,006	6,463
(증감률)	(8.4)	(7.6)	(-1.0)	(13.7)	(8.5)	(-2.4)	(-4.7)	(2.3)	(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4 섬유류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15년 상반기 수입물량은 섬유원료,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제품의 수입물량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6% 늘어난 838.5천톤을 기록하였으나, 수입단가는 1.8% 감소한 7.8불/kg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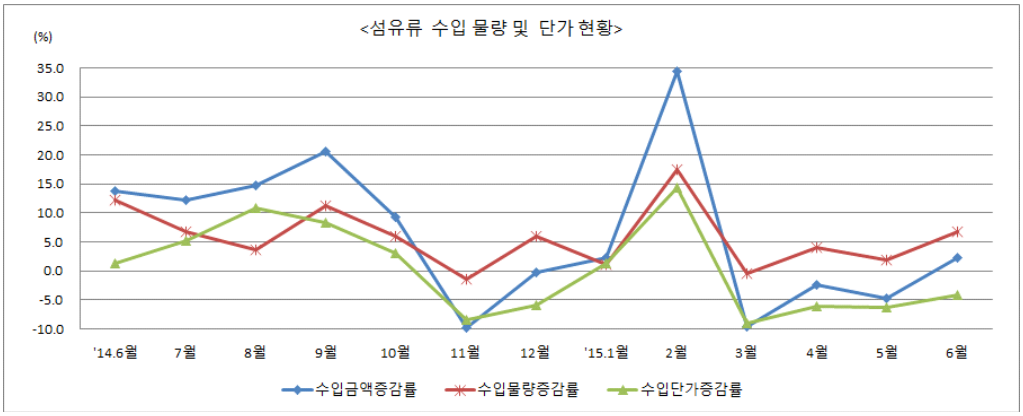
- '15년 6월 수입물량은 섬유류 전품목의 물량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43.6천톤, 수입단가는 4.2% 줄어든 7.0불/kg을 기록

<섬유류 수입물량 및 단가 현황>

(단위 : 천톤, 불/Kg,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수입물량	1,712.3	153.1	132.8	134.5	801.8	159.1	135.2	143.6	838.5
(증감률)	(5.0)	(5.7)	(-4.6)	(12.2)	(4.6)	(4.0)	(1.8)	(6.8)	(4.6)
수입단가	8.6	7.7	7.0	7.3	8.0	7.2	6.6	7.0	7.8
(증감률)	(3.3)	(1.8)	(3.8)	(1.3)	(3.8)	(-6.2)	(-6.4)	(-4.2)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4 섬유류 기준), 분기별 수입단가(누계평균),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국가별 수입: '15년 상반기 베트남, 중국, EU, 인도 등 증가

○ '15년 상반기 국가별 수입의 경우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EU 등 주요국으로부터 수입은 소폭 증가

- 중국은 섬유원료(△33.3%), 섬유사(△2.0%)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최대 수입품목인 섬유제품(1.5%)과 섬유직물(0.6%) 품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7% 늘어난 2,940백만불을 기록

- 베트남은 섬유사(2.4%), 섬유직물(4.7%), 섬유제품(4.9%) 등의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1,081백만불을 기록

- 인도의 경우 섬유직물(78.1%)의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EU는 섬유원료(2.6%), 섬유사(12.1%), 섬유제품(1.7%)의 수입이 증가

○ '15년 6월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 EU의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베트남, 미얀마,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섬유류 주요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국 가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중국	6,593	573	474	451	2,920	554	446	472	2,940
(증감률)	(4.3)	(4.6)	(-1.8)	(9.3)	(4.7)	(-3.4)	(-5.9)	(4.6)	(0.7)
베트남	2,758	176	111	145	1,033	180	115	132	1,081
(증감률)	(20.1)	(10.0)	(-0.1)	(39.6)	(21.8)	(2.3)	(4.0)	(-9.2)	(4.7)
EU	1,433	95	93	114	626	94	90	119	637
(증감률)	(9.1)	(5.4)	(7.6)	(2.7)	(4.5)	(-1.0)	(-3.2)	(4.7)	(1.8)
인니	758	66	41	44	349	61	45	47	348
(증감률)	(2.4)	(5.9)	(-19.3)	(-2.9)	(5.3)	(-6.7)	(9.2)	(6.9)	(-0.4)
미얀마	467	32	13	19	162	34	9	18	162
(증감률)	(18.7)	(22.9)	(9.8)	(41.0)	(23.7)	(6.6)	(-29.1)	(-4.2)	(0.0)
미국	367	29	31	33	183	28	24	29	165
(증감률)	(3.1)	(-4.1)	(-3.4)	(7.7)	(4.9)	(-2.4)	(-21.5)	(-10.5)	(-10.0)
인도	363	33	29	27	184	38	31	33	207
(증감률)	(5.5)	(-3.5)	(10.8)	(26.3)	(-1.8)	(13.5)	(4.7)	(19.7)	(12.7)
합 계	14,658	1,179	930	983	6,388	1,150	886	1,006	6,463
(증감률)	(8.4)	(7.6)	(-1.0)	(13.7)	(8.5)	(-2.4)	(-4.7)	(2.3)	(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4 섬유류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2. 섬유산업 수급 동향

1) 전체 섬유산업

□ '15년 상반기 생산,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15년 상반기 섬유산업 생산지수는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화섬, 면방, 직물, 의류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88.6을 기록

- 출하지수는 3.1% 감소한 90.6, 재고지수는 2.9% 증가한 121.1, 가동률지수는 4.2% 감소한 91.4를 기록

○ '15년 6월 섬유산업 생산지수는 화섬 및 직물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84.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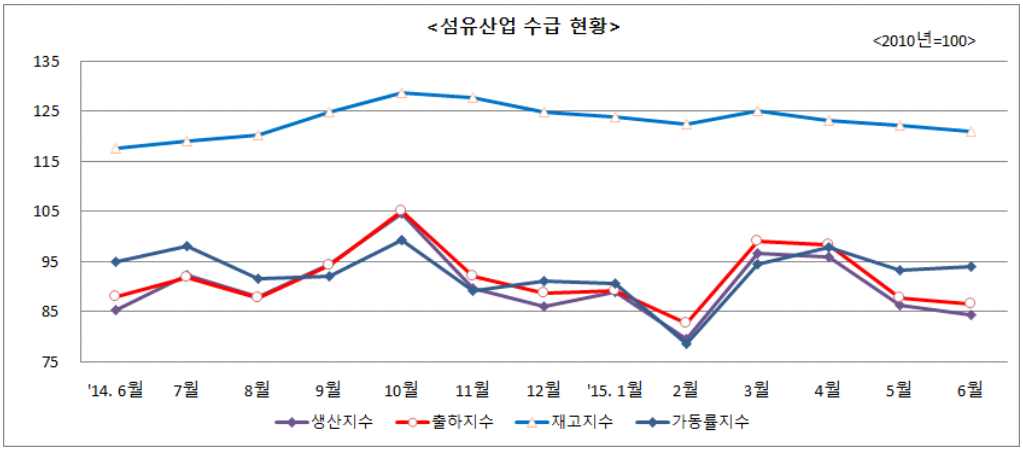
- 출하지수는 1.8% 감소한 86.5, 재고지수는 2.9% 증가한 121.1, 가동률지수는 1.0% 감소한 94.0을 기록

<섬유산업 수급 현황>

(단위 : 2010=100,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평균 (1~6월)	4월	5월	6월	평균 (1~6월)
생산지수 (증감률)	92.6 (-3.8)	101.0 (2.2)	88.6 (-4.9)	85.4 (-2.4)	92.7 (-2.0)	95.9 (-5.0)	86.2 (-2.7)	84.5 (-1.1)	88.6 (-4.4)
출하지수 (증감률)	93.4 (-3.7)	102.0 (2.2)	88.5 (-5.0)	88.1 (-0.7)	93.4 (-2.5)	98.3 (-3.7)	87.8 (-0.8)	86.5 (-1.8)	90.6 (-3.1)
재고지수 (증감률)	124.9 (2.1)	121.5 (8.5)	120.7 (6.7)	117.7 (3.7)	117.7 (3.7)	123.1 (1.4)	122.2 (1.3)	121.1 (2.9)	121.1 (2.9)
가동률지수 (증감률)	94.5 (-3.0)	101.6 (0.1)	98.3 (-4.8)	94.9 (-3.7)	95.4 (-0.9)	97.8 (-3.8)	93.2 (-5.1)	94.0 (-1.0)	91.4 (-4.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섬유산업은 섬유, 의복, 화학섬유 등을 포함,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2) 화섬

□ '15년 상반기 화섬 생산,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15년 상반기 화섬생산은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800.9천톤을 기록

- 출하는 국내외 판매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691.7천톤, 재고는 6.3% 증가한 101.8천톤을 기록

○ '15년 6월 화섬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131.0천톤을 기록

- 출하는 12.6% 감소한 110.8천톤, 재고는 6.3% 증가한 101.8천톤을 기록

<화섬 수급 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생산동향 (물량기준)	생산량	1,684.9	141.6	142.6	140.5	854.1	135.6	138.7	131.0	800.9
	(증감률)	(-5.3)	(-6.8)	(-5.9)	(-3.0)	(-4.6)	(-4.2)	(-2.7)	(-6.7)	(-6.2)
	출하량	1,462.6	127.2	122.7	126.8	739.7	122.9	113.3	110.8	691.7
	(증감률)	(-6.6)	(-2.9)	(-8.3)	(-2.5)	(-6.8)	(-3.4)	(-7.7)	(-12.6)	(-6.5)
	재고량	94.7	98.1	100.4	95.8	95.8	91.0	99.2	101.8	101.8
	(증감률)	(5.0)	(6.1)	(7.7)	(5.8)	(5.8)	(-7.3)	(-1.2)	(6.3)	(6.3)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화학섬유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이며, 물량 기준 계산수치임

3) 면방

□ '15년 상반기 면사 생산, 출하, 재고 감소

○ '15년 상반기 면사 생산은 방적 설비 및 면제품의 수요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128.6천톤을 기록

- 출하는 내수 수요감소와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123.0천톤, 재고는 전년 재고과잉에 따른 기저효과로 2.2% 감소한 20.1천톤을 기록

○ '15년 6월 면사생산은 성수기 영향 등으로 4.1% 증가한 21.9천톤을 기록

- 출하는 5.5% 감소한 21.2천톤, 재고는 2.2% 감소한 20.1천톤을 기록

<면방 수급 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생산동향 (물량기준)	생산량	260.4	22.5	22.1	21.0	133.5	21.7	22.3	21.9	128.6
	(증감률)	(-7.5)	(-7.0)	(-8.6)	(-11.5)	(-4.2)	(-3.7)	(0.9)	(4.1)	(-3.7)
	출하량	253.9	21.6	21.1	22.4	127.5	22.4	19.9	21.2	123.0
	(증감률)	(-4.8)	(2.3)	(-0.8)	(1.3)	(-2.9)	(3.7)	(-5.4)	(-5.5)	(-3.5)
	재고량	17.6	22.5	22.8	20.1	20.1	18.0	20.1	20.1	20.1
	(증감률)	(-7.8)	(60.4)	(42.0)	(22.0)	(22.0)	(-19.9)	(-11.8)	(-2.2)	(-2.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면사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이며 톤 기준 계산수치임

4) 직물

□ '15년 상반기 직물 생산, 출하, 재고 감소

○ '15년 상반기 직물 생산은 내수부진 및 주요 품목의 수출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한 86.6을 기록

- 출하는 주력품목의 수출감소와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83.1, 재고는 4.8% 감소한 104.2를 기록

○ '15년 6월 직물생산은 수출 및 내수경기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96.6을 기록

- 출하는 2.5% 감소한 94.5, 재고는 4.8% 감소한 104.2를 기록

<직물 수급 현황>

(단위 : 2010=100,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평균 (1~6월)	4월	5월	6월	평균 (1~6월)
생산동향 (지수기준)	생산지수 (증감률)	92.5 (1.1)	100.1 (4.3)	100.5 (3.4)	103.3 (8.3)	96.1 (3.7)	93.5 (-6.6)	91.6 (-8.9)	96.6 (-6.5)	86.6 (-9.9)
	출하지수 (증감률)	90.0 (2.5)	98.2 (7.3)	97.4 (2.4)	96.9 (6.6)	92.6 (4.6)	88.8 (-9.6)	89.3 (-8.3)	94.5 (-2.5)	83.1 (-10.2)
	재고지수 (증감률)	102.2 (-4.5)	106.1 (-6.4)	107.8 (-4.1)	109.5 (-2.5)	109.5 (-2.5)	104.4 (-1.6)	103.8 (-3.7)	104.2 (-4.8)	104.2 (-4.8)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직물직조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지수기준 계산수치임

5) 의류

□ '15년 상반기 의류 생산,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15년 상반기 의류 생산지수는 내수 경기불황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한 82.4를 기록

- 출하는 2분기 메르스 여파로 0.2% 감소한 90.7, 재고는 4.4% 증가한 113.6을 나타냄

○ '15년 6월 의류생산은 성수기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67.7을 기록

- 출하는 수출감소 및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 경기침체로 1.0% 감소한 75.4, 재고는 4.4% 증가한 113.6을 기록

<의류 수급 현황>

(단위 : 2010=100,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평균 (1~6월)	4월	5월	6월	평균 (1~6월)
생산동향 (지수기준)	생산지수 (증감률)	88.1 (-5.9)	97.1 (6.0)	71.7 (-6.3)	67.3 (-3.2)	85.9 (-2.5)	90.3 (-7.0)	73.2 (2.1)	67.7 (0.6)	82.4 (-4.1)
	출하지수 (증감률)	92.6 (-5.5)	101.6 (4.5)	76.0 (-5.8)	76.2 (-0.3)	90.9 (-2.9)	98.8 (-2.8)	82.3 (8.3)	75.4 (-1.0)	90.7 (-0.2)
	재고지수 (증감률)	122.2 (4.2)	114.9 (11.2)	112.2 (8.4)	108.8 (5.1)	108.8 (5.1)	118.6 (3.2)	115.2 (2.7)	113.6 (4.4)	113.6 (4.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복・모피 기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지수기준 계산수치임

□ '15년 상반기 의류 소매판매액 0.4% 감소한 25조 40억원 기록

○ '15년 상반기 의류 소매판매액은 1분기 해외 SPA 브랜드 매출 호조 등에 따른 판매 증가에도 불구,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여파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한 25조 40억원을 기록

- 백화점의 경우, 1분기 해외 유명 브랜드 등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 여성의류 등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2분기에도 메르스 확산 우려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매출 감소

- 대형마트의 경우, 1분기의 의류 매출 감소세가 2분기에도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의류 판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메르스 확진자 누계추이(명): ('15.5.20)2 → (6.1)25 → (6.14)150 → (6.28)182 → (7.26)186

○ '15년 6월 의류 소매판매액은 메르스 및 휴일영업일수 감소(△3일)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의류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한 3조 4,940억원을 기록

- 백화점의 경우, 세일 등 판촉행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영향으로 남성의류(△18.1%), 여성캐주얼(△12.4%), 해외유명브랜스(△11.2%) 등 전 품목 판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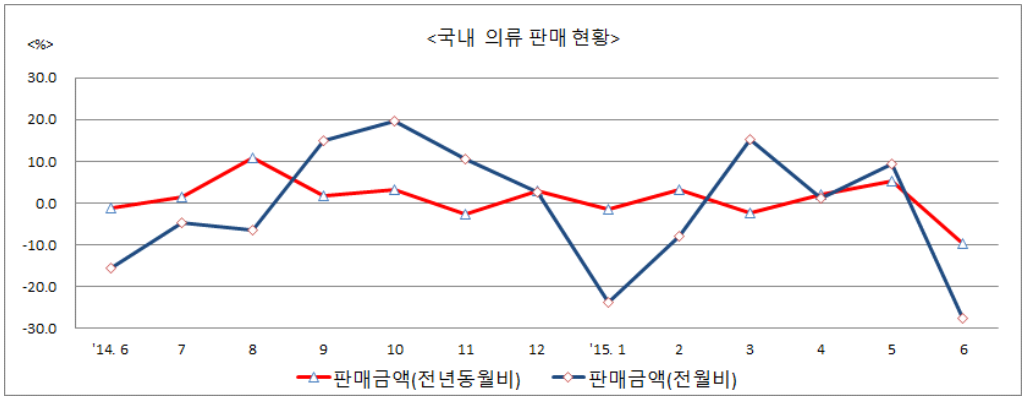
- 대형마트의 경우, 메르스 영향에 따른 야외활동 축소 및 아웃도어 판매 둔화로 의류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

<국내 의류 판매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판매 금액	51,602	4,328	4,583	3,871	25,110	4,415	4,823	3,494	25,004
전년(동월·기)비	1.8	4.4	1.7	-1.0	1.3	2.0	5.2	(-9.8)	-0.4
(전월·기비)	-	(-3.4)	(5.9)	(-15.5)	(-3.0)	(1.1)	(9.2)	(-27.6)	(-5.6)

자료 : 통계청, 소매판매액(경상금액) 통계



3. 외환 ·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1) 외환

□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달러 및 엔화 강세

○ '15년 상반기 원/ 달러 환율은 1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달러 강세를 보였으며, 2분기에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달러강세가 이어짐

- 6월 원/ 달러 환율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전월대비 7.3원 상승한 1,115.5원을 기록

* 원/ 달러 환율 : 1,108.2원('15.5월) → 1,115.5원('15.6월)

○ '15년 상반기 원/ 100엔 환율은 1분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분기 그리스 경제위기 우려로 상승하는 등 900원에서 등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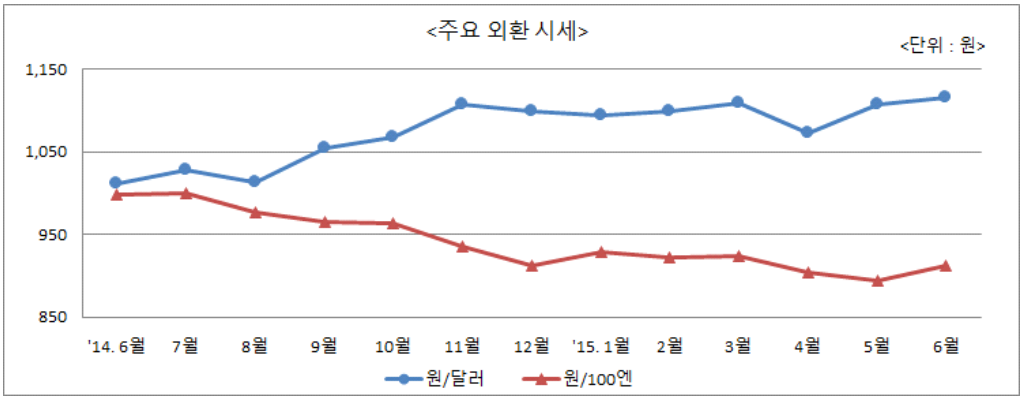
- 원/ 100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경계 발언, 그리스 영향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전월대비 17.5원 상승한 921.1원을 기록

* 원/ 100엔 환율 : 894.6원('15.5월) → 912.1원('15.6월)

<주요 외환 시세>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평균 (1~6월)	4월	5월	6월	평균 (1~6월)
원/달러	1,053.4	1,033.2	1,020.1	1,011.8	1,044.6	1,072.4	1,108.2	1,115.5	1,099.6
원/100엔	990.6	1,009.2	1,004.3	998.8	1,022.1	904.4	894.6	912.1	914.1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주) 월은 종가기준, 연, 분기는 평균가임



2) 국제 원자재 가격

□ 국제유가 제한적 등락

○ 국제유가는 '14년 하반기 큰 폭으로 하락하여 '15년 1월 40불대 중반에 머물렀으나, 4월 중순 이후에는 60불대로 상승. 이는 OPEC의 기존 생산목표 유지 결정에도 불구, 미국의 원유 시추설비 가동기 수 감소, 주요 에너지 기업의 투자 축소 영향 등으로 공급과잉 규모가 줄어든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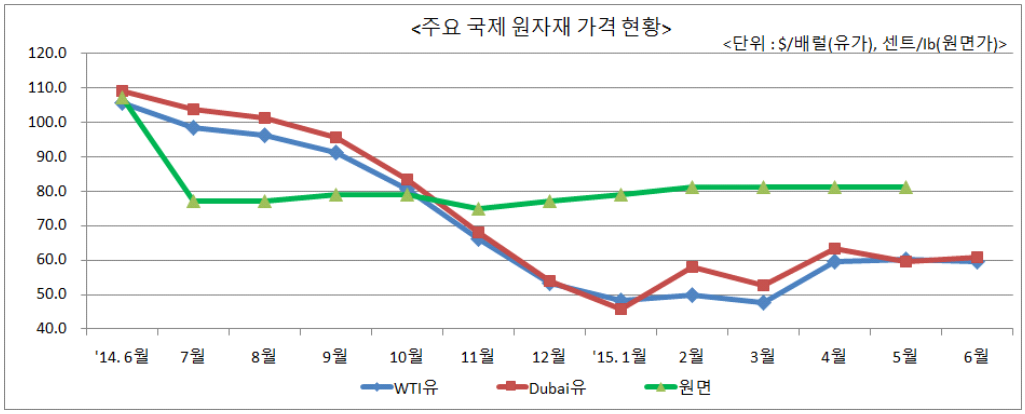
○ '15년 상반기 국제면화 가격은 '14년 7월 세계 원면 재고 증가에 따른 원면 가격 급락과 생산 축소 전망으로 0.77$/lb을 기록한 이후 '15년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주 양모가격은 '15년 1분기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2분기 중국내 재고소진에 따른 구매증가로 증가세를 보임

○ '15년 상반기 화섬원료 가격의 경우 에틸렌글리콜(MEG) 및 카프로락탐은 수요증가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아크릴로니트릴(AN)은 중국의 신규공장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 국내 화섬업체의 수요감소 등으로 하락세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평균(1~6월)	4월	5월	6월	평균(1~6월)
유가($/배럴)	WTI유	91.2	99.7	102.7	105.4	101.6	59.6	60.3	59.5	54.2
	Dubai유	95.0	104.9	106.4	109.0	105.8	63.4	59.6	60.9	56.7
면방($/lb)	원면	0.92	1.08	1.08	1.07	1.06	0.81	0.81	-	-
모방(호주$/kg)	양모	10.4	10.5	10.4	10.2	10.5	11.7	13.1	12.6	11.7
화섬($/톤)	에틸렌글리콜	922.3	927.9	905.2	989.1	951.9	903.5	977.3	-	-
	아크릴로니트릴	1,963.3	1,975.0	1,880.0	1,930.0	1,952.5	1,425.0	1,417.5	-	-
	카프로락탐	2,194.5	2,211.5	2,195.0	2,230.0	2,260.4	1,774.0	1,790.0	-	-

자료 : 한국은행「국제금융속보」, 한국수입업협회(KOIMA 지수동향), 한국모방협회 제공 자료
주) 월은 종가기준, 연, 분기는 평균가임



〈참 고〉 2015년 실물경제지표(6월)

1. 산업활동·실업률·물가 및 경상·자본수지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 기)대비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평균(1~6월)	4월	5월	6월	누계/평균(1~6월)
제조업 생산지수	0.1	2.8	-2.2	0.5	0.5	-2.7	-2.9	1.3	-1.2
평균 가동률	-0.5	1.8	-2.0	0.1	-0.2	-4.0	-2.3	-1.4	-3.1
설비투자지수	5.2	12.1	6.1	2.3	7.1	2.6	0.8	11.9	6.7
실업률	3.5	3.9	3.6	3.5	3.8	3.9	3.8	3.9	4.0
소비자물가	1.3	1.5	1.7	1.7	1.4	0.4	0.5	0.7	0.5
경상수지(억불)	892.2	71.6	91.2	79.6	394.3	81.4	86.2	121.9	523.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경상수지는 누계치임

2.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전년(동월, 기)대비 %)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1~6월)	4월	5월	6월	누계(1~6월)
수 출	572,665	50,267	47,577	47,828	283,208	46,238	42,332	46,676	268,698
(증감률)	(2.3)	(8.9)	(-1.5)	(2.4)	(2.4)	(-8.0)	(-11.0)	(-2.4)	(-5.1)
수 입	525,515	45,873	42,607	42,476	263,323	37,734	36,066	36,699	222,356
(증감률)	(1.9)	(5.1)	(0.5)	(4.3)	(2.7)	(-17.7)	(-15.4)	(-13.6)	(-15.6)
무역수지	47,150	4,394	4,970	5,352	19,885	8,504	6,266	9,977	46,3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국민계정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계	1/4	2/4
GDP(증감률)	3.9	3.4	3.3	2.7	3.3	2.5	2.2
민간소비(증감률)	2.6	1.7	1.5	1.4	1.8	1.5	1.6
설비투자(증감률)	7.2	7.7	4.2	4.2	5.8	5.8	4.8
GDP(억불)	-	-	-	-	14,100	-	-
1인당 GNI(불)	-	-	-	-	28,180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국민계정은 분기별 지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연간 지표

4. 중소기업 관련

구 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평균(1~6월)	4월	5월	6월	누계/평균(1~6월)
신설법인수(A, 개)	84,697	7,226	6,365	7,133	41,485	8,315	6,673	8,778	46,418
부도법인수(B, 개)	614	44	45	46	315	58	40	62	302
창업배율(A/B)	(137.9)	(164.2)	(141.4)	(155.1)	(131.7)	(143.4)	(166.8)	(141.6)	(153.7)
생산지수	106.4	112.3	107.2	106.6	106.1	108.2	102.5	108.3	104.4
(증감률, %)	(0.1)	(3.6)	(-2.1)	(-1.4)	(1.3)	(-3.7)	(-4.4)	(1.6)	(-1.6)

자료 : (신설법인수) 중소기업청, (부도법인수)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 (생산지수) 광공업통계(2010년=100)

〈참 고〉 기업경기조사(전국실적 및 전망) 결과

항목		구분	2014년			2015년		
			10월	11월	12월	6월	7월	8월(전망)
업태 시황		섬유	64	56	62	50	45	45
		의복모피	69	68	72	56	68	74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섬유	78	86	84	72	73	75
		의복모피	95	92	87	91	87	85
	출하 (매출)	섬유	71	73	73	56	56	57
		의복모피	92	90	87	67	76	80
	제품 재고	섬유	115	111	121	125	122	121
		의복모피	105	96	104	101	112	111
생산 가동률		섬유	77	83	81	70	70	71
		의복모피	93	91	85	84	84	81
내수, 수출 수요	내수 판매	섬유	74	68	66	51	54	56
		의복모피	86	83	83	61	69	72
	수출	섬유	79	73	77	59	63	63
		의복모피	85	91	83	92	96	94
신규 오더 수주, 설비 투자 등	신규 수주	섬유	69	90	72	59	58	63
		의복모피	92	84	88	77	75	76
	설비 투자	섬유	95	94	88	93	90	91
		의복모피	91	91	93	95	92	91
	생산 설비	섬유	105	96	104	105	113	111
		의복모피	103	95	99	97	93	94
가격 및 채산성	원자재 구입 가격	섬유	114	107	105	103	102	100
		의복모피	111	108	104	113	104	105
	제품 판매 가격	섬유	82	79	75	83	73	75
		의복모피	92	91	87	88	86	89
	채산성	섬유	76	73	77	80	74	73
		의복모피	77	86	87	83	82	86
자금 및 인력 사정	자금 사정	섬유	67	65	73	73	63	63
		의복모피	66	77	79	81	78	80
	인력 사정	섬유	92	85	91	97	98	101
		의복모피	103	95	97	97	92	94

주 : 기업경기조사(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기업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기예측기법임.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 응답업체수가 부정 응답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면방산업 동향

대한방직협회

1. 방적사 생산 현황

○ '15년 상반기 방적사 생산량은 방적 설비 및 면제품의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8.7% 감소한 126,720톤을 기록

- '15년 6월 방적사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21,500톤을 기록

  * '15년 6월 방적설비 추수는 전년대비 16.9% 감소

○ 3분기 방적사 생산은 설비추수 감소와 계절적 비수기로 인하여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방적사 생산 현황〉

(단위: M/T)

구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방적사	271,329 (-4.2)	23,158 (-5.2)	22,921 (-7.0)	21,950 (-8.6)	138,787 (-1.0)	21,324 (-7.9)	21,539 (-6.0)	21,500 (-2.1)	126,720 (-8.7)

* 주 : 대한방직협회 회원사 기준

( )는 전년동월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15년 6월자료는 추정치임

2. 면사수출 현황

○ '15년 상반기 면사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0.0% 감소한 1억 2,179만불, 중량기준으로는 10.6% 감소한 3만 5,875톤을 기록

- (베트남) 오더 수주 부진 및 베트남 자체 면사 소싱 증가로 '15년 상반기 베트남으로의 면사수출은 16.8% 감소한 1,613만불을 기록

- (인도네시아) 지난 해 9월부터 발효된 면사 세이프가드(한국, 베트남산 포함)의 영향으로 '15년 상반기 인도네시아로의 면사수출은 70.4% 감소한 397만불을 기록

- (미국)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의 영향으로 '15년 상반기 미국으로의 면사수출은 11.8% 증가한 1,688만불을 기록

  * 미국의 코마사 FTA 수입관세 : '15년 1.1-2.4%, '16년 0% 예정

○ '15년 면사수출은 중국의 내수 둔화, 미국 의류소비의 더딘 회복으로 인한 면사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면사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

〈면사 수출 현황〉

(단위: US천불, M/T)

구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금액	291,452 (-6.7)	25,697 (0.7)	28,133 (14.9)	26,318 (11.3)	152,258 (0.2)	25,762 (0.3)	18,172 (-35.4)	21,065 (-20.0)	121,790 (-20.0)
중량	78,320 (1.7)	6,806 (9.2)	7,544 (25.2)	7,296 (21.5)	40,148 (8.3)	7,634 (12.2)	5,356 (-29.0)	6,394 (-12.4)	35,875 (-10.6)

* 주 : ( )는 전년동월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면사수입 현황

○ '15년 상반기 면사수입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한 2억 5,215만불, 반면 중량기준으로는 0.7% 증가한 약 7만 2,081톤을 기록

- '14년 20% 이상 급감하였던 면사수입은 '15년 들어 감소세가 둔화

- 면사수입에 있어 금액기준으로 카드사와 코마사의 수입이 각각 약 20%, 8%씩 감소한 반면, CVC사*의 수입은 약 3% 증가

  * CVC(Chief Value Cotton)사 : 면의 함량이 50% 이상인 혼방사로 주로 Polyester와 혼방함

- 중량기준으로 주요 면사수입국인 인도와 베트남으로부터의 면사수입은 각각 7.2%, 7.8%씩 증가

○ 월별 수입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15년 면사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면사 수입 현황〉

(단위: US천불, M/T)

구분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금액	525,144 (-20.1)	49,487 (-20.7)	40,114 (-29.8)	44,590 (-9.2)	275,474 (-21.0)	47,169 (-4.7)	37,892 (-5.5)	44,801 (0.5)	252,148 (-8.5)
중량	137,865 (-17.8)	12,625 (-19.3)	10,210 (-26.4)	11,140 (-6.5)	71,613 (-19.6)	13,323 (5.5)	11,055 (8.3)	12,860 (15.4)	72,081 (0.7)

* 주 : ( )는 전년동월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4. 원료 가격 현황

□ 세계 원면 수급 및 가격 동향

○ 2014/15시즌의 수급 전망(ICAC 2015. 7. 1. 발표)

- 기초재고 : 20.04백만톤(전년시즌 대비 13.0% 증가)
- 생산 : 26.20백만톤(전년시즌 대비 0.3% 감소)
- 소비 : 24.36백만톤(전년시즌 대비 2.6% 증가)
- 기말재고 : 21.89백만톤(전년시즌 대비 9.2% 증가)

○ 2015. 6. 30.현재 Cotlook A Index : 74.30US¢/LB

- 13/14시즌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원면가격은 14/15시즌들어 70~75센트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년시즌(2013/14)의 Cotlook A Index 평균가격 : 91.00 US¢/LB
* 금년시즌(2014/15)의 Cotlook A Index 평균가격의 범위 : 70~73 US¢/LB (ICAC 전망치)

〈원면 가격 현황〉

(단위 : US¢/LB)

구분	13.6	13.12	14.3	14.6	14.9	14.12	15.1	15.2	15.3	15.4	15.5	15.6
'A' Index	91.10	88.15	96.40	89.70	70.15	70.05	67.30	71.75	69.95	73.95	72.30	74.30

* 자료 : 매월말 Cotlook Limited 발표 기준

5. 면사 가격 현황

○ ‘15년 들어서 원료인 원면가격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면사 가격은 면제품의 수요 감소로 가격의 약세는 지속되고 있음

- ‘15년 6월 면사가격은 코마 30수가격이 고리당 570불로 전년동월대비 약 12% 하락하였음

〈주요 면사 가격 현황〉

(단위 : US$/고리)

품 명	13.12	14.3	14.6	14.9	14.12	15.1	15.2	15.3	15.4	15.5	15.6
CM20	640	650	610	610	600	570	560	540	540	540	530
CM30	680	700	650	650	640	610	600	580	580	580	570
CM40	770	790	740	740	730	700	690	670	670	670	660

* 주 : 해당년월말 호가(Offer) 기준으로 공급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작성자 : 대한방직협회 송현석 과장 (hssong@swak.org)

화섬산업 동향

한국화섬협회

'15년 상반기 화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 재고는 10.9% 증가함. 상반기 화섬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한 1,13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3.3% 증가한 558천톤을 기록. 품목별 수출물량은 폴리에스터 F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109천톤, 폴리에스터 SF는 6.9% 증가한 345천톤을 기록하였으나, 아크릴 SF는 18.1% 감소한 15천톤을 기록. 상반기 화섬 수입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55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5.1% 증가한 217천톤을 기록. 품목별 수입물량은 폴리에스터 F(4.9%), 폴리에스터 SF(41.4%), 스판덱스(38.6%), 나일론 F(8.3%)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화섬 생산 및 출하

○ '15년 상반기 화섬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648천톤을 기록

- Polyester F 생산은 6.9% 감소한 316천톤, Nylon F는 9.2% 감소한 53천톤을 기록했으며, 아크릴 SF도 정기보수,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12.3% 감소한 19천톤에 그침

○ 상반기 화섬 출하량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641천톤을 기록

- 그 중 내수 판매가 344천톤(△12.2%), 직수출이 297천톤(△1.7%)으로 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경기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재고는 10.9% 증가하여 102천톤에 이름

<화섬 생산 및 출하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생 산	출 하			재 고
			국내수요	직수출	계	
PF	'14년	659	526	139	665	53
	'15.1-6	316	244	65	309	60
PSF	'14년	543	129	407	536	27
	'15.1-6	260	55	205	260	28
NF	'14년	115	80	34	114	11
	'15.1-6	53	37	16	53	11
ASF	'14년	50	21	30	51	4
	'15.1-6	19	8	12	20	3
합계	**'14년**	**1,367 (△6.2)**	**754 (△10.2)**	**612 (0.2)**	**1,366 (△5.6)**	**95 (1.5)**
	'15.1-6	**648 (△6.5)**	**344 (△12.2)**	**297 (△1.7)**	**641 (△7.7)**	**102 (10.9)**

자료 : 회원사 기준,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화섬 수출입 동향(통관기준)

□ 수 출

○ '15년 상반기 화섬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558천톤을 기록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11.5% 감소한 1,138백만불을 기록하면서, 수출 단가의 하락(△13.5%)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화섬 F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한 547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물량기준은 160천톤으로 오히려 2.2% 증가함. 화섬 SF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15.9% 감소한 591백만불을 기록하였나, 수출물량은 398천톤으로 3.8% 증가

- 상반기 화섬 품목별(물량기준) 수출은 아크릴 SF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함. 폴리에스터 SF가 345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으며, 나이론 F 24천톤, 스판덱스 12천톤으로 각각 5.9%, 8.0% 증가함

  · PF(0.9%), NF(5.9%), Spandex(8.0%), PSF(6.9%), ASF(△18.1%)

○ 6월 화섬 수출은 전반적인 화섬가격 하락으로 금액 기준은 12.2% 감소한 191백만불이나, 물량기준으로는 전년수준인 92천톤 수준에 이름

- 6월 품목별 수출(물량 기준)은 나일론 F(△10.6%)과 아크릴 SF(△4.2%)는 감소하였으나, 폴리에스터 F(9.0%), 폴리에스터 SF(1.0%), 스판덱스(2.3%) 수출은 증가함

<화섬 품목별 수출금액 현황>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14					2015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화섬	금액	2,586.6	232.8	206.6	217.5	1,286.9	203.4	181.6	190.9	1,138.3
	증감률	△2.6	△1.3	△11.6	5.0	△2.8	△12.6	△12.1	△12.2	△11.5
화섬 F	금액	1,173.6	107.5	96.8	96.1	584.0	96.1	87.3	90.7	547.0
	증감률	△3.9	△4.6	△13.7	△1.3	△6.3	△10.6	△9.8	△5.6	△6.3
화섬 SF	금액	1,413.0	125.4	109.8	121.5	702.9	107.3	94.3	100.2	591.3
	증감률	△1.5	1.7	△9.7	10.6	0.2	△14.4	△14.1	△17.5	△15.9

자료 : KITA, 통관기준/화섬 SF에는 재생섬유 포함,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세부 품목별 수출물량 현황>

(단위 : 천톤, %)

품 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화섬 F	물량	316.9	29.1	25.6	25.3	156.9	28.9	25.8	26.5	160.4
	증감률	△2.2	△1.6	△13.4	△1.6	△4.2	△0.7	0.8	4.6	2.2
PF	물량	216.3	20.1	17.0	16.8	108.3	19.6	17.8	18.3	109.3
	증감률	△1.1	0.3	△15.3	△3.9	△1.3	△2.6	4.2	9.0	0.9
NF	물량	48.2	4.2	3.9	4.3	22.6	4.4	3.7	3.8	24
	증감률	△7.6	△9.1	△17.2	△1.8	△15.9	5.1	△6.2	△10.6	5.9
Span dex	물량	23.9	2.1	2.0	1.9	11.5	2.2	2.2	2.0	12.4
	증감률	△9.7	△12.3	△12.4	△4.5	△16.2	2.0	6.3	2.3	8.0
화섬 SF	물량	779.4	69.3	60.1	67.2	383.4	75.3	64.0	66.0	398.0
	증감률	2.2	9.3	△5.7	11.3	4.2	8.7	6.4	△1.9	3.8
PSF	물량	650.1	58.5	50.0	55.1	322.3	65.7	54.9	55.7	344.5
	증감률	1.7	13.3	△4.4	8.8	3.6	12.2	9.8	1.0	6.9
ASF	물량	40.5	2.6	3.1	3.8	17.7	2.6	2.8	3.6	14.5
	증감률	2.3	△42.2	△16.4	1.1	13.0	△0.7	△9.1	△4.2	△18.1
화섬 계	물량	1,096.3	98.4	85.6	92.5	540.3	104.2	89.7	92.4	558.4
	증감률	0.9	5.8	△8.2	7.4	1.6	5.9	4.8	△0.1	3.3

자료 : KITA, 화섬 SF에는 재생섬유 포함,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15년 상반기 국별 화섬수출은 터키(17.6%), 미국(18.9%), 베트남(12.9%), 이태리(9.1%), 일본(8.7%)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국(△6.2%), 독일(△11.4%), 인니(△13.6%), 이란(△21.4%)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임

- 6월 국별 수출(물량 기준)은 베트남(48.2%), 미국(18.2%), 이태리(15.2%), 일본(3.9%)은 증가하였으나, 브라질(△36.5%), 인도네시아(△29.6%), 중국(△17.6%), 터키(△15.0), 독일(△6.7%)로의 수출은 감소

<화섬 주요국별 수출물량 현황>

(단위 : 천톤, %)

국 가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중국	물량	133.0	12.2	11.1	12.2	64.8	13.2	10.7	10.1	61.8
	증감률	0.8	11.7	△6.1	12.4	10.5	8.7	△3.8	△17.6	△6.2
미국	물량	153.8	14.1	11.2	12.2	73.9	15.2	14.7	14.5	88.0
	증감률	10.2	24.9	△17.0	11.5	3.8	7.7	31.1	18.2	18.9
베트남	물량	66.4	6.6	6.1	5.3	31.3	6.4	6.1	7.9	34.9
	증감률	△0.6	46.2	4.1	△7.4	10.3	△2.0	△0.3	48.2	12.9
이란	물량	26.6	1.5	1.9	2.8	13.2	1.3	1.2	1.4	11.0
	증감률	△37.5	△67.9	△60.2	△27.6	△49.3	△17.3	△37.5	△51.6	△21.4
일본	물량	48.4	4.0	3.6	4.2	23.7	4.3	3.8	4.4	25.1
	증감률	19.4	13.5	6.2	36.8	19.4	6.7	4.7	3.9	8.7
브라질	물량	31.7	2.7	3.1	3.0	15.2	2.7	1.7	1.9	12.4
	증감률	6.0	3.2	10.6	8.6	△10.4	0.2	△44.5	△36.5	△20.0
터키	물량	37.6	3.2	2.5	3.8	17.0	3.9	3.0	3.2	20.9
	증감률	25.4	9.3	18.8	55.5	15.3	22.3	16.8	△15.0	17.6
독일	물량	64.3	6.3	4.4	4.6	34.3	5.9	5.0	4.3	31.1
	증감률	7.2	△5.0	△10.9	3.4	17.0	△5.5	11.7	△6.7	△11.4
인니	물량	44.0	4.1	3.6	4.2	22.2	2.9	3.6	3.0	18.8
	증감률	△4.6	19.2	3.8	20.7	3.9	△28.9	1.3	△29.6	△13.6
이태리	물량	44.2	4.2	3.4	2.0	22.4	5.3	3.2	2.3	24.6
	증감률	10.0	35.8	9.3	△14.1	8.2	25.8	△4.1	15.2	9.1
세계 계	물량	1,096.3	98.4	85.7	92.7	540.6	104.2	89.7	92.4	558.4
	증감률	0.8	5.8	△8.2	7.4	1.5	5.9	4.7	△0.3	3.3

자료 : KITA, 주) 세계 계에는 기타 국가 포함.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수 입

○ '15년도 상반기 화섬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55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물량은 5.1% 증가한 217천톤을 기록하며, '13년 이후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상반기 화섬 F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한 460백만불을 기록한 반면, 물량은 5.6% 증가한 178천톤을 기록. 화섬 SF 수입액 또한 9.4% 감소한 9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물량은 2.9% 증가한 39천톤을 기록

○ 6월 화섬수입은 금액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한 91백만불, 물량은 0.6% 증가한 37천톤을 기록하며, 단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화섬 품목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화섬	금액	1,224.2	110.6	101.9	101.6	603.2	101.1	91.2	91.1	558.4
	증감률	12.1	14.2	△1.3	17.1	11.8	△8.6	△10.5	△10.4	△7.4
화섬 F	금액	1,000.9	93.0	83.5	85.4	494.8	83.3	77.4	75.0	460.2
	증감률	16.6	25.8	1.8	26.0	18.5	△10.4	△7.3	△12.2	△7.0
화섬 SF	금액	223.2	17.7	18.5	16.2	108.4	17.8	13.8	16.0	98.1
	증감률	△4.1	△23.1	△13.1	△14.8	△11.3	0.7	△25.2	△0.9	△9.4

자료 : KITA, 화섬 SF에는 재생섬유 포함,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15년 상반기 세부 품목별(물량기준) 수입은 폴리에스터 F 및 SF, 나일론 F, 아크릴 SF가 각각 135톤, 10천톤, 20천톤, 1천톤으로 4대 합섬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4.9%, 41.4%, 8.3%, 8.2% 증가함

· PF(4.9%), NF(8.3%), Span(38.6%), PSF(41.4%), ASF(8.2%)

- 6월 화섬수입도 폴리에스터 SF가 19.0%, 아크릴 SF가 26.7% 증가함

<세부 품목별 수입물량 현황>

(단위 : 천톤, %)

품 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화섬 F	물량	340.9	32.4	28.7	30.3	168.6	33.6	30.3	30.1	178.0
	증감률	30.1	46.3	15.2	48.2	38.3	3.6	5.8	△0.8	5.6
PF	물량	258.5	25.1	21.8	23.2	128.7	25.6	23.0	23.1	135.0
	증감률	38.0	61.8	22.7	56.6	52.3	2.3	5.7	△0.7	4.9
NF	물량	38.9	3.4	3.3	3.2	18.3	3.4	3.3	3.2	19.8
	증감률	15.0	18.4	△1.2	43.7	12.4	1.8	0.0	△1.7	8.3
Span dex	물량	7.4	0.6	0.4	0.6	3.2	0.8	0.7	0.7	4.4
	증감률	△6.7	△25.7	△27.6	△6.6	△30.2	38.3	68.3	21.3	38.6
화섬 SF	물량	79.8	6.4	6.8	6.1	37.4	6.9	5.5	6.6	38.5
	증감률	2.3	△17.6	△4.1	△3.8	△8.2	8.4	△18.8	7.5	2.9
PSF	물량	16.0	1.1	1.6	1.4	6.7	1.5	1.4	1.6	9.5
	증감률	51.3	29.9	67.1	55.4	32.9	41.6	△12.2	19.0	41.4
ASF	물량	2.1	0.2	0.3	0.2	1.2	0.2	0.2	0.2	1.3
	증감률	3.9	7.1	△2.1	57.1	△4.8	△67.4	△70.5	26.7	8.2
화섬 계	물량	420.7	38.8	35.5	36.5	206.1	40.5	35.9	36.7	216.6
	증감률	23.8	29.8	10..9	35.9	35.9	4.4	1.1	0.6	5.1

자료 : KITA, 화섬 SF에는 재생섬유 포함,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15년 상반기 국별 화섬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12.4%)을 비롯하여 인니(71.4%), 베트남(50.0%), 일본(9.1%) 인도(11.1%)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말련(△27.3%), 미국(△8.3%) 및 대만(△14.3%)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함. 최근 들어 인도, 인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후발 화섬국가로부터 저가의 화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6월 국별 수입량은 인니(82.6%), 베트남(56.5%), 일본(11.6%), 중국(5.6%)은 증가한 반면, 말련(△20.7%) 태국(△34.2%), 대만(△26.2%)은 감소함

<화섬 주요국별 수입물량 현황>

(단위 : 천톤, %)

국 가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중국	물량	183.4	18.0	15.7	15.9	89.6	19.9	17.5	16.8	99.6
	증감률	25.1	39.1	17.3	28.3	23.6	10.6	11.5	5.6	12.4
말련	물량	58.1	6.2	5.3	5.4	32.5	4.3	3.6	4.2	24.2
	증감률	27.0	75.4	25.0	69.4	77.6	△31.0	△32.1	△20.7	△27.3
일본	물량	22.3	2.1	1.9	1.9	10.7	2.1	2.1	2.1	12.0
	증감률	16.6	20.0	△9.3	37.5	△9.3	△0.6	9.5	11.6	9.1
태국	물량	24.5	1.7	2.0	2.7	11.2	1.3	1.2	1.8	10.7
	증감률	22.6	△10.3	8.4	72.6	23.1	△23.2	△39.8	△34.2	△9.1
미국	물량	26.0	2.0	1.8	2.2	12.7	1.9	1.7	1.8	10.7
	증감률	1.3	△18.8	△39.3	6.8	△6.6	△3.7	△8.2	△17.2	△8.3
인니	물량	14.3	1.2	0.9	1.2	6.2	2.1	2.5	2.3	12.2
	증감률	37.4	5.8	△10.1	73.9	17.0	78.1	166.6	82.6	71.4
베트남	물량	11.5	0.8	0.7	0.7	4.8	1.1	1.1	1.1	6.9
	증감률	27.8	24.1	1.3	22.1	20.0	29.9	60.3	56.5	50.0
대만	물량	13.2	1.2	1.1	1.3	6.7	1.3	0.9	0.9	6.1
	증감률	2.5	4.1	2.0	16.8	4.7	4.4	△15.4	△26.2	△14.3
인도	물량	32.8	2.6	2.9	2.8	14.9	3.2	2.9	2.6	16.5
	증감률	196.6	419.2	211.3	163.9	313.9	24.9	△0.7	△8.5	11.1
세계 계	물량	420.7	38.8	35.5	36.5	206.1	40.5	35.9	36.7	216.5
	증감률	23.8	29.8	10.9	35.9	△15.6	4.4	1.1	0.6	5.1

자료 : KITA, 주) 세계 계에는 기타 국가 포함.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3. 원료 시황

ㅇ 세계적인 화섬 원료 공급 과잉 현상에, 지난해부터 지속된 원유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화섬원료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음. 전년 대비 화섬원료 가격은 품목별로 평균 11 ~ 29% 수준 하락하였으나, 저점을 이루던 금년 초와 비교하면 최근들어 14 ~ 30%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음

- PTA, MEG 등 폴리에스터 원료와 폴리에스터 원사의 국제 가격은 '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유지되다가 금년 초를 기점으로 다소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음

  · 6월 기준으로 PTA는 전년동기대비 24% 하락하였으나, 연초 대비로는 24.6% 상승하였으며, MEG 역시 전년동기대비 4.4% 하락하였으나 연초 대비로는 30.5% 수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AN 가격은 최근까지도 하락세가 유지되며 가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ㅇ 6월 화섬원료 ACP(아시아 계약가격)는 다음과 같음

- PTA : 톤당 722불(전년동기대비 △24.2%, 전월대비 △3.0%)
- MEG : 톤당 945불(전년동기대비 △4.4%, 전월대비 △2.9%)
- CPL : 톤당 1,758불(전년동기대비 △19.8%, 전월대비 0.2%)
- AN : 톤당 1,348불(전년동기대비 △29.0%, 전월대비 △2.5%)

<주요 화섬원료 ACP 가격 추이>

(단위 : US$/Ton)

원료	'14년			'15년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TA	953	924	662	579	591	632	696	744	722
MEG	988	928	785	724	796	823	928	973	945
CPL	2,192	2,204	1,917	1,646	1,542	1,645	1,692	1,754	1,758
AN	1,898	2,022	1,896	1,815	1,606	1,461	1,386	1,383	1,348

자료 : 중국화섬신식망(CCFEI)

※ 작성자 : 한국화섬협회 김진규 팀장(enjoyedc@kcfa.or.kr)

모방산업 동향

한국모방협회

2015년 상반기 모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하였으나, 모직물 수출은 0.4% 증가. 수입에서는 모사 및 모직물이 각각 41.4%, 13.2% 증가함. Wool Top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중량기준으로 18.6% 증가함

1. 생 산

○ '15년 상반기 소모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3,418톤을 나타냈으나, 소모직물 생산은 신사정장 소비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9.4% 감소한 4,955천yd를 기록

<소모사 및 소모직물 생산>

(단위 : 톤, 천yd,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1-12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소 모 사	6,503	615	545	590	3,206	613	574	597	3,418
증감률	-6.4	-2.2	-13.6	0.2	-3.1	-0.3	5.3	1.2	6.6
소모직물	12,213	1,012	1,060	1,047	6,149	872	793	1,047	4,955
증감률	-7.2	1.8	4.0	-21.7	2.1	-13.8	-25.2	-1.6	-19.4

자료 : 통계청

2. 수출 · 입

□ Wool Top 수입동향

○ '15년 상반기 Wool Top 수입은 2/4분기에도 증가를 보여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74백만불, 중량기준으로는 18.6% 증가한 5,866톤을 기록

* 6월 수입단가는 전년동월대비 6.8% 하락함

<Wool Top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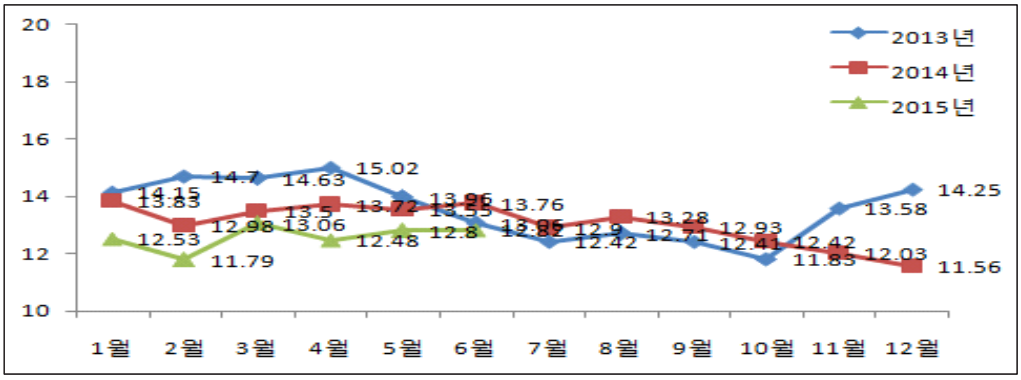
(단위 : 천불, 톤,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1-12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금액	127,688	13,700	11,445	10,213	67,137	14,341	12,654	14,439	73,792
증감률	-10.6	-22.0	-18.0	-1.8	-15.8	4.7	10.6	41.4	9.9
중량	9,795	999	845	742	4,946	1,149	989	1,126	5,866
증감률	-6.7	-14.6	-15.6	-6.8	-11.3	15.0	17.0	51.8	18.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ool Top 수입단가>

(단위 : 달러/kg)



□ 모사, 모직물 수출동향

○ '15년 상반기 모사 수출은 베트남, 중국 등의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한 12,252천불을 보임

○ '15년 상반기 모직물 수출은 중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홍콩 등으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한 23,291천불을 나타냄

<모사 수출실적>

(단위 : 천불,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1-12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소모	5,803	567	312	605	3,119	389	324	458	1,802
증감률	-49.7	-12.2	-76.8	-54.5	-56.2	-31.4	3.6	-24.2	-42.2
비중	28.5	18.4	13.3	22.3	23.8	13.1	12.3	17.5	14.7
방모	11,800	1,874	1,353	1,646	7,882	2,177	2,109	1,853	9,344
증감률	-34.5	-49.7	-58.7	-7.7	-43.7	16.1	55.8	12.6	18.5
비중	58.0	61.0	59.8	60.6	60.1	73.3	79.9	70.8	76.3
기타	2,736	633	673	467	2,120	405	208	306	1,106
증감률	75.1	156.0	585.7	144.7	137.5	-36.0	-69.1	-34.4	-47.8
비중	13.5	20.6	28.8	17.2	16.2	13.6	7.9	11.7	9.0
누계	20,339	3,074	2,339	2,718	13,120	2,971	2,641	2,618	12,252
증감률	-34.6	-33.4	-50.4	-17.7	-40.4	-3.3	12.9	-3.7	-6.6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모직물 수출실적>

(단위 : 천불,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1-12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소모	30,156	2,950	3,012	4,084	13,250	2,880	2,942	3,483	12,556
증감률	5.1	48.7	-25.2	-6.6	-0.4	-2.4	-2.3	-14.7	-5.2
비중	56.0	64.6	53.1	56.1	57.1	55.2	59.2	49.2	53.9
방모	23,593	1,615	2,657	3,202	9,958	2,333	2,031	3,593	10,734
증감률	33.7	-10.7	-5.1	17.8	15.1	44.4	-23.6	12.2	7.8
비중	43.8	35.4	46.9	43.9	42.9	44.8	40.8	50.8	46.1
기타	92	0	0	0	1	0	0	0	0
증감률	11.8	-	-	-	-	-	-	-	-
비중	0.2	0.0	0.0	0.0	0.0	0.0	0.0	0.0	0.0
누계	53,841	4,566	5,669	7,286	23,208	5,213	4,972	7,077	23,291
증감률	16.0	20.3	-16.9	2.7	5.6	14.2	-12.3	-2.9	0.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S551513 T/W 모직물 제외)

□ 모사, 모직물 수입동향

○ 모사 수입은 연초부터 이어진 수입이 2/4분기에도 이어져 2015년 상반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41.4% 증가한 19,494천불을 나타냄

○ '15년 상반기 모직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한 31,870천불을 보임

- 국가별 소모직물 수입은 이태리 14,413천불(+5.9%), 중국 3,247천불(+37.6%)을 나타냄

○ '15년 상반기 신사복(HS 6203110000)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한 11,893천불로, 국가별로는 중국(-6.3%), 이태리(-26.9%)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모사 수입실적>

(단위 : 천불,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1-12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소모	19,773	1,203	2,051	2,612	8,634	2,094	2,987	3,453	12,762
증감률	14.1	-12.0	-23.8	47.1	-2.1	74.1	45.6	32.2	47.8
비중	59.6	55.2	62.4	57.4	62.7	64.1	67.4	54.2	65.5
방모	8,425	666	1,121	1,731	4,088	1,030	1,337	2,610	5,684
증감률	11.5	-26.7	13.7	10.4	-5.0	54.8	19.3	50.8	39.1
비중	25.4	30.5	34.1	38.1	29.7	31.5	30.2	41.0	29.2
기타	3,976	312	116	207	1,052	141	110	304	1,027
증감률	-23.3	129.5	-30.0	59.5	28.0	-54.9	-4.7	47.3	-2.3
비중	12.0	14.3	3.5	4.6	7.6	4.3	2.5	4.8	5.3
누계	32,173	2,181	3,288	4,549	13,774	3,266	4,434	6,368	19,494
증감률	7.0	-9.6	-14.4	31.0	-1.2	49.8	34.9	40.0	41.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모직물 수입실적>

(단위 : 천불,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1-12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소모	53,634	1,893	3,690	7,046	18,499	2,232	4,518	7,948	20,542
증감률	11.1	-28.7	-23.8	18.0	-2.1	17.9	22.4	12.8	11.0
비중	61.1	68.3	63.2	56.7	65.7	72.8	65.7	53.5	64.5
방모	33,631	867	2,129	5,308	9,365	775	2,342	6,868	11,070
증감률	14.8	-19.9	-18.3	42.1	7.0	-10.6	10.0	29.4	18.2
비중	38.3	31.3	36.4	42.7	33.3	25.3	34.1	46.2	34.7
기타	528	12	24	68	288	58	18	48	258
증감률	60.7	-44.3	10.6	81.5	140.5	380.2	-23.8	-30.3	-10.4
비중	0.6	0.4	0.4	0.5	1.0	1.9	0.3	0.3	0.8
누계	87,835	2,772	5,842	12,422	28,152	3,065	6,878	14,864	31,870
증감률	12.8	-26.2	-21.8	27.5	1.4	10.6	17.7	19.7	13.2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S551513 T/W 모직물 제외)

3. 원 료

○ '15년 6월말 호주 양모 경매가격은 전월 대비 3.7% 감소한 1,263호주센트/kg을 나타냄

(단위 : 호주센트/kg)

구 분		16.5μ	17μ	17.5μ	18.5μ	19.5μ	EMI
2015년	6월	1,572	1,530	1,493	1,424	1,375	1,263
	5월	1,597	1,551	1,538	1,492	1,439	1,312
	4월	1,428	1,404	1,381	1,343	1,294	1,172
	3월	1,363	1,337	1,324	1,268	1,185	1,094
	2월	1,352	1,346	1,326	1,255	1,178	1,088
	1월	1,359	1,350	1,336	1,270	1,173	1,070
2014년	12월	1,280	1,272	1,267	1,237	1,184	1,059
	11월	1,302	1,293	1,285	1,258	1,196	1,056
	10월	1,322	1,291	1,269	1,224	1,164	1,029
	9월	1,287	1,237	1,233	1,196	1,143	1,023
	8월	1,284	1,227	1,211	1,181	1,109	1,002
	7월	1,280	1,242	1,204	1,168	1,137	1,026
	6월	1,278	1,218	1,178	1,138	1,133	1,022
	5월	1,309	1,265	1,239	1,195	1,170	1,040
	4월	1,354	1,291	1,271	1,221	1,183	1,048
	3월	1,310	1,248	1,208	1,157	1,106	1,006
	2월	1,403	1,352	1,318	1,260	1,215	1,077
	1월	1,480	1,431	1,397	1,334	1,289	1,132
2013년	12월	1,453	1,419	1,381	1,337	1,290	1,134
2012년	12월	1,531	1,403	1,342	1,295	1,263	1,072
2011년	12월	1,803	1,651	1,566	1,467	1,402	1,189

주) μ(마이크론) : 굵기 단위(1μ=mm의 1/1000을 의미)
EMI : 동부가격지수 (Eastern Market Indicator)

※ 작성자 : 한국모방협회 오상엽 부장(333oh@unitel.co.kr)

직물류 수출입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15년도 상반기 직물수출은 선진국의 경기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한 42억 3천만불을 기록. 전반적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편직물과 인조장섬유직물의 수출이 약세를 보임. 직물류 수입은 1.6% 증가한 9억 2천만불을 기록

1. 직물류 수출동향

□ '15년 상반기 직물류 전체 수출은 편직물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전반적인 감소세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한 42억 3천만불을 기록

○ 2/4분기 직물류 수출은 5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7.1%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상반기 주요 직물류 수출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직물류 품목별 수출실적 현황>

(단위 : 천불, %)

품 목		2014년					2015년			
		전체 누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견직물	금액	77,648	7,462	7,661	6,976	40,321	7,300	6,714	6,220	36,047
	증감률	-9.1	-5.5	-21.0	19.0	-9.1	-2.2	-12.4	-10.8	-10.6
모직물	금액	53,821	4,566	5,669	7,286	23,208	5,213	4,972	7,077	23,291
	증감률	15.9	20.3	-16.9	2.7	5.6	14.2	-12.3	-2.9	0.4
면직물	금액	419,596	35,951	34,532	33,519	203,992	36,787	33,627	36,533	193,312
	증감률	-6.3	-3.8	-19.3	-8.0	-3.5	2.3	-2.6	9.0	-5.2
인조 장섬유	금액	2,304,984	242,523	234,497	204,406	1,217,494	215,609	191,077	194,980	1,062,226
	증감률	2.1	8.0	-0.9	-2.3	4.3	-11.1	-18.5	-4.6	-12.8
인조 단섬유	금액	394,010	32,363	34,398	40,436	188,051	27,010	27,168	36,871	167,715
	증감률	8.9	16.8	11.3	19.4	10.6	-16.5	-21.0	-8.8	-10.8
편직물	금액	3,930,772	379,176	352,511	319,589	1,973,762	363,939	296,152	304,521	1,781,348
	증감률	-3.8	2.3	-11.0	-4.2	-4.0	-4.0	-16.0	-4.7	-9.7
기타 직물	금액	2,081,570	201,651	188,154	166,508	1,064,268	188,371	150,957	155,320	963,485
	증감률	-0.1	2.4	-2.4	0.4	1.5	-6.6	-19.8	-6.7	-9.5
-부직포	금액	467,594	42,602	40,146	35,616	235,989	37,596	30,150	34,407	208,362
	증감률	-1.1	-3.1	-0.7	-4.0	-0.5	-11.8	-24.9	-3.4	-11.7
-코팅 (5903)	금액	901,287	93,173	84,037	69,935	464,507	91,414	73,514	65,847	433,866
	증감률	5.3	10.2	-0.5	-0.7	7.6	-1.9	-12.5	-5.8	-6.6
-타이어 코드	금액	278,239	25,248	23,693	22,813	143,721	25,459	21,134	22,542	140,653
	증감률	-10.0	-18.8	-13.2	-3.6	-9.1	0.8	-10.8	-1.2	-2.1
-자수포	금액	117,154	10,151	11,009	9,836	59,303	9,061	7,615	8,517	49,699
	증감률	6.8	15.7	5.5	13.4	9.9	-10.7	-30.8	-13.4	-16.2
직물류 합계	금액	9,262,402	903,693	857,421	778,720	4,711,096	844,229	710,668	741,522	4,227,424
	증감률	-1.1	4.0	-6.4	-1.7	-0.2	-6.6	-17.1	-4.8	-10.3

자료 : KOTIS

□ 상반기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상반기 직물류 수출 감소는 최대 수출 품목인 편직물의 수출(17억 8천만불, △9.7%)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조장섬유직물의 수출 여건 악화, 부직포와 코팅직물류, 기타직물의 수출 감소 영향이 큼

- '15년 상반기 중 2월(5억 3천만불, △21,8%)과 5월(7억 1천만불, △17.1%)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상반기 내내 모직물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수출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2. 국가별 직물 수출동향

□ 상반기 직물의 국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베트남 수출이 4.0% 감소한 9억 4천만불, 중국 6억 5천만불(△16.8%), 인도네시아 4억 4천만불(△9.1%), 미국 3억 4천만불(△5.9%)을 기록

○ '15년 상반기 지역 수출동향에서 특이점은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1억 9천만불, △9.9%)을 앞질러 수출순위 5위로 순위가 뒤바뀜

- 필리핀(1억 1천만불, △2.4%)으로의 수출도 일본 수출 감소세(9천만불, △18.7%) 영향에 기인하여 7위로 순위 변경됨

<주요국별 직물류 수출 실적>

(단위 : 천만불, %)

순 위	국 가 명	2014년				2015년	
		계		누계(1~6월)		누계(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베트남	1,975,813	9.5	975,975	11.9	937,417	-4.0
2	중국	1,521,030	-10.0	775,982	-8.9	645,582	-16.8
3	인도네시아	968,293	0.6	485,294	-2.7	441,048	-9.1
4	미국	696,243	0.2	355,825	0.9	334,928	-5.9
5	아랍에미리트연합	385,428	7.4	194,728	8.9	196,247	0.8
6	홍콩	436,809	-8.6	194,728	-7.1	194,465	-9.9
7	필리핀	213,999	-2.6	110,382	6.2	107,725	-2.4
8	일본	217,427	8.4	113,193	4.5	91,993	-18.7
9	터키	175,581	15.7	90,958	20.9	79,469	-12.6
10	사우디아라비아	166,296	-11.2	103,796	-16.7	78,357	-24.5
합 계		9,262,402	-1.1	4,711,096	-0.2	4,227,424	-10.3

자료 : KOTIS

3. 직물류 수입동향

□ '15년 상반기 직물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9억 2천만불을 기록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면직물과 인조장섬유직물 등 주요 수입품목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기타직물과 부직포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

○ 2/4분기 직물 수입의 월별 수입은 4월 1억 7천만불(4.7%), 5월 1억 5천만불(△4.4%), 6월은 1억 7천만불(1.0%)을 기록

○ 주요 수입 품목인 면직물은 6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2억 1천만불을 기록했으며, 1/4분기에 이어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부직포는 11.9% 증가한 1억 8천만불을 기록

<직물류 품목별 수입실적 현황>

(단위 : 천불, %)

품 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견직물	금액	53,374	5,545	5,577	4,439	26,972	4,929	4,579	4,114	25,219
	증감률	-14.8	-5.7	-1.5	-8.8	-15.0	-11.1	-17.9	-7.3	-6.5
모직물	금액	87,835	2,772	5,842	12,422	28,152	3,065	6,878	14,864	31,870
	증감률	12.8	-26.2	-21.8	27.5	1.4	10.6	17.7	19.7	13.2
면직물	금액	416,222	37,578	33,550	36,788	217,892	41,063	30,832	32,594	209,556
	증감률	-2.0	-3.4	-4.4	24.1	3.9	9.3	-8.1	-11.4	-3.8
인조장섬유 직물	금액	218,451	20,121	20,147	21,263	109,024	20,003	18,822	21,501	105,325
	증감률	0.6	10.3	0.4	10.0	2.9	-0.6	-6.6	1.1	-3.4
인조단섬유 직물	금액	205,031	18,702	15,536	15,474	96,648	17,289	14,732	16,597	97,387
	증감률	6.5	11.3	-11.1	-0.3	1.9	-7.6	-5.2	7.3	0.8
편직물	금액	140,613	7,343	11,551	12,618	55,491	7,974	9,134	13,579	53,717
	증감률	11.6	2.1	53.4	22.8	14.6	8.6	-20.9	7.6	-3.2
기타직물	금액	744,445	72,542	64,465	63,793	373,700	77,958	64,839	65,144	399,766
	증감률	7.9	13.5	-2.9	20.1	9.3	7.5	0.6	2.1	7.0
-부직포	금액	329,683	31,360	29,533	28,442	160,069	34,436	29,280	2,9705	179,071
	증감률	17.0	22.7	12.7	27.2	16.6	9.8	-0.9	4.4	11.9
-코팅 (5903)	금액	130,300	11,679	10,156	10,983	62,101	10,523	8,584	10,084	58,319
	증감률	7.4	10.1	-2.3	30.3	9.5	-9.9	-15.5	-8.2	-6.1
-타이어 코드	금액	132,419	13,154	10,161	10,236	69,137	14,164	10,878	10,974	70,725
	증감률	-14.5	-8.6	-40.6	-16.3	-12.5	7.7	7.0	7.2	2.3
-자수포	금액	23,229	2,045	1,951	1,696	10,801	1,713	1,688	1,890	11,506
	증감률	37.3	2.7	25.3	45.0	23.0	-16.3	-13.5	11.4	6.5
직물 합계	금액	1,865,970	164,602	156,668	166,797	907,878	172,282	149,816	168,393	922,841
	증감률	4.2	6.4	-1.9	17.1	5.5	4.7	-4.4	1.0	1.6

자료 : KOTIS

※ 작성자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상훈 차장 (ktta@textra.or.kr)

패션칼라산업 동향

한국패션칼라산업(협)연합회

- 패션칼라산업의 경우, '14년도 상반기와 '15년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오더량이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 됨
-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는 성수기 시즌 등으로 어느 정도 양호한 가동률을 유지하였지만 6월, 7월부터 급속도로 오더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염료가격은 작년 상반기 대비 현재 약 30% 정도 인상되었음
- 현재 업체들은 지속적인 오더량 감소와 염료 가격의 인상으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1. 품목별 동향

□ 폴리에스터

ㅇ 폴리에스터 품목은 올해 초 가동율이 양호하였으나, 5월 중순을 기점으로 감량물과 비감량물 모두 오더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업체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은 조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임

- 폴리에스터 비감량물은 감량물 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황임
- 폴리에스터 품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더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오더량 감소와 더불어 저가 수주로 인하여 업체들의 채산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Nylon

ㅇ 나일론 직물 품목은 올해 초 성수기 시즌에도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오더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아웃도어 제품의 성장 둔화와 일부 해외 오더가 경쟁국(대만 등)으로 이탈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음
- 향후 나일론 품목의 가동률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교직물

○ 교직물 품목 역시 타 품목과 같이 올해 초 오더량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4월까지는 이어졌으나, 5월부터 전반적으로 오더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 일부 업체들은 인원을 감축하는 등 향후 장기 침체에 대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니 트

○ 니트 품목은 올해 타 품목 대비 가동률이 매우 양호한 품목으로 6월까지는 양호한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니트 품목도 7월에 접어들면서 오더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업체간 과당경쟁에 의한 임가공료 하락과 염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업체들의 채산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나 염

○ 나염 품목은 올해 초 오더량이 조금 회복되었으나 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현재 오더량이 감소하고 있음

- 현재 나염 품목 중에서 면 나염은 조금 나은 상황이나 폴리에스터 나염은 오더량이 미미한 상황임

- 향후에도 가동률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원자재가격 동향

○ 염료 가격

- 현재 염료 가격은 전년대비 30% 정도 인상되었음

- 세계 염색물의 오더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염료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이유는 염료 주 생산국인 중국에서 염료 생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환경 단속에 따른 오염배출 물질의 규제 강화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더불어 일부 염료 생산 업체들의 폐쇄에 따른 몇몇 대기업 염료 생산 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이 염료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내 염색업체 염료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상성염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 향후에도 염료가격은 폭등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염색업체들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염료 국내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kg)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15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4월	6월	8월	12월	4월	5월	6월
산성 BLACK	3,900	3,900	4,300	4,700	4,700	7,100	7,200	7,100	6,800	4,500	4,550	4,550
분산 BLACK	2,600	2,750	3,000	3,100	3,100	3,500	3,500	3,400	3,450	3,400	3,450	3,500
분산 YELLOW	9,850	10,300	11,020	11,800	11,820	15,500	16,500	18,000	18,200	18,600	18,700	18,800

자료 :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자체조사

주 : 회원사 사용 단가, 부가세별도

○ 에너지 가격 추이

- 6월 에너지 가격은 국제가격의 인상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음

- 그러나 세계적인 유가 안정으로 향후에도 에너지 비용은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B-C유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ℓ)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15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	8월	12월	4월	5월	6월
B-C유	950	930	920	905	870	850	900	890	890	860	780	680	630	670

자료 :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자체조사

주 : 회원사 사용 단가, 부가세별도

※ 작성자 : 한국패션칼라산업(협)연합회 배영봉 전무(v202@daum.net)

대구경북 섬유업계 동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15년 상반기 수출은 전체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감소한 1,436백만불을 기록하였음
6월 대구경북지역의 섬유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1%(13백만불) 감소한 237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전월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들었음
산업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를 반영한 듯 업계가 느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5·6월 실적이 74.8로 낮게 조사되었고, 향후 전망 또한 66.4로 더욱 더 경기침체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였음. ※Business Survey Index의 범위: (0 ≦ BSI ≦ 200)

1. 지역 섬유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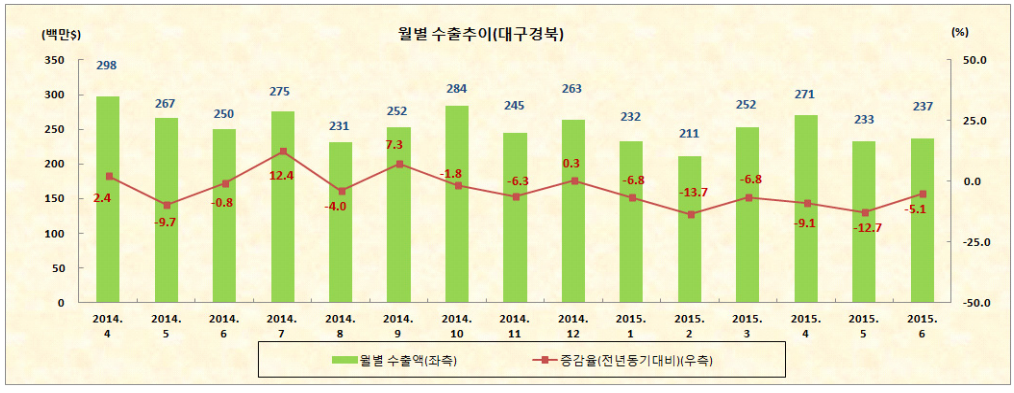
○ 대구경북지역의 '15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한 1,436백만불, 6월 섬유류 수출은 5.1% 감소한 237백만불을 기록

- 전국의 '15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한 7,209백만불, 6월은 6.2% 감소한 1,275백만불을 기록

<섬유류 월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4년									2015년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대구경북	298	267	250	275	231	252	284	245	263	232	211	252	271	233	237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2.4	-9.7	-0.8	12.4	-4.0	7.3	-1.8	-6.3	0.3	-6.8	-13.7	-6.8	-9.1	-12.7	-5.1
전국	1,508	1,413	1,359	1,489	1,182	1,219	1,459	1,244	1,334	1,143	948	1,241	1,403	1,204	1,275



2.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 국가별 수출 분석

- 대구경북지역의 '15년 6월의 국가별 수출은 미국, 베트남, UAE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일본, 사우디, 인도네시아, 홍콩, 터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가별 섬유류 수출액 현황>

구 분				중국	베트남	미국	인니	일본	홍콩	UAE	사우디	터키	세계계
전국	2014년		금액	2,515.2	2,733.7	1,432.9	1,340.0	866.6	613.1	459.6	247.6	304.1	15,936.4
			증감률	-7.9	9.2	1.4	1.1	5.2	-8.5	7.4	-9.9	10.3	-0.1
			비중	15.8	17.2	9.0	8.4	5.4	3.8	2.9	1.6	1.9	100.0
	2015년	5월	금액	182.6	243.4	112.6	93.6	59.4	45.2	40.0	17.0	19.7	1,203.1
			증감률	-19.3	-8.5	-4.0	-23.3	-17.9	-9.2	-1.2	-32.6	-26.0	-14.9
			비중	15.2	20.2	9.4	7.8	4.9	3.8	3.3	1.4	1.6	100.0
		6월	금액	197.3	261.7	128.5	88.0	60.0	45.6	40.8	14.7	22.3	1,274.6
			증감률	-9.9	3.2	4.3	-11.5	-17.1	-6.3	7.2	-28.9	-18.8	-6.2
			비중	15.5	20.5	10.1	6.9	4.7	3.6	3.2	1.2	1.7	100.0
대구	2014년		금액	141.4	125.2	135.9	64.5	41.6	66.6	121.6	47.8	47.2	1,266.7
			증감률	-11.7	18.1	0.9	35.1	-1.8	-2.9	9.4	-15.6	39.9	6.9
			비중	11.2	9.9	10.7	5.1	3.3	5.3	9.6	3.8	3.7	100.0
	2015년	5월	금액	10.2	10.2	9.7	3.9	3.9	4.4	13.6	3.4	3.5	99.1
			증감률	-24.2	-5.0	-20.1	-35.0	10.0	-16.2	37.5	-44.7	-30.9	-13.7
			비중	10.3	10.3	9.8	3.9	3.9	4.5	13.7	3.5	3.5	100.0
		6월	금액	9.9	8.7	11.9	3.0	3.5	4.4	13.6	2.7	3.4	96.0
			증감률	-10.8	-16.5	5.5	-39.5	16.8	-12.7	36.6	-4.3	-18.5	-6.2
			비중	10.3	9.0	12.4	3.1	3.6	4.5	14.2	2.8	3.6	100.0
경북	2014년		금액	241.0	121.9	178.6	66.0	118.9	26.1	105.9	60.3	87.7	1,862.4
			증감률	0.4	-7.3	-0.1	-42.5	3.7	-30.5	6.4	-6.5	8.5	-4.8
			비중	12.9	6.5	9.6	3.5	6.4	1.4	5.7	3.2	4.7	100.0
	2015년	5월	금액	18.1	10.4	13.7	4.5	8.0	1.5	6.9	4.2	6.6	133.5
			증감률	-6.1	12.1	2.8	-32.7	-14.8	-9.6	-24.0	-38.2	3.1	-12.1
			비중	13.6	7.8	10.3	3.4	6.0	1.1	5.1	3.2	4.9	100.0
		6월	금액	18.0	11.8	16.3	4.0	8.9	1.3	6.9	2.8	6.5	140.9
			증감률	-12.5	29.5	25.2	-35.1	-10.6	-27.2	-14.1	-47.3	1.7	-4.3
			비중	12.8	8.4	11.6	2.8	6.3	0.9	4.9	2.0	4.6	100.0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토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가공)

단위 : 수출액(백만불), 증감률(전년대비, %) 비중(세계계 대비, %)

3.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 대구경북지역의 지난 6월의 품목별 수출실적은 나일론직물이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4.6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출평균단가는 3.7% 증가한 15.29US$/kg을 기록.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다소 호전은 되었으나 누적치 기준으로는 아직 감소세이며, 다만 감소폭은 둔화되었음

○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59.9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단가는 3.3% 감소한 10.06US$/kg(0.34$↓)을 기록

○ 니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 하락한 26.3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단가는 4.66 US$/kg로 전년대비 5.8%하락. 니트 평균단가는 전국대비 57% 정도로 비교적 많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구경북지역 섬유류 품목별 수출액 현황>

품목 / 기간		2014년					2015년			
		연간	4월	5월	6월	누계	4월	5월	6월	누계
섬유원료	금액	498.1	43.3	37.9	40.9	245.8	37.9	33.8	36.0	217.5
	증감률	-5.6	2.1	-18.9	1.3	-5.8	-12.5	-10.9	-12.0	-11.5
섬유사	금액	567.2	52.9	47.6	45.9	282.8	45.1	40.9	41.3	257.0
	증감률	1.4	5.1	-6.4	0.9	-1.0	-14.7	-13.9	-10.1	-9.1
나일론	금액	64.5	6.3	6.3	4.5	34.8	6.2	4.7	4.6	28.6
	증감률	7.0	9.4	17.0	-11.7	12.9	-2.6	-25.8	1.6	-17.6
폴리에스터	금액	745.7	76.9	65.7	59.7	384.4	71.3	62.6	59.9	354.2
	증감률	1.0	4.2	-15.8	-1.5	-2.5	-7.3	-4.7	0.3	-7.8
복합교직물	금액	68.6	7.1	5.9	4.9	36.0	7.5	4.7	5.1	36.2
	증감률	-11.4	-15.5	-20.5	-16.3	-19.2	5.2	-19.8	4.0	0.3
면직물	금액	99.4	9.7	9.0	6.8	51.1	8.4	7.1	8.1	45.3
	증감률	-6.2	-6.6	-17.2	-15.5	-5.2	-13.3	-21.1	18.3	-11.3
니트	금액	366.3	37.1	33.7	31.8	188.5	31.5	26.7	26.3	160.5
	증감률	0.4	2.3	-3.7	11.8	-1.2	-15.1	-20.7	-17.1	-14.8
기타	금액	531.2	47.7	45.0	42.8	264.8	45.8	37.3	41.7	245.8
	증감률	1.9	-0.2	-2.1	-0.8	2.9	-3.9	-17.2	-2.6	-7.2
직물계	금액	1,875.7	184.9	165.7	150.6	959.5	170.7	143.2	145.7	870.7
	증감률	0.4	1.3	-9.4	-0.5	-1.2	-7.7	-13.6	-3.2	-9.3
섬유제품	금액	188.1	16.7	15.6	12.2	91.5	17.0	14.8	13.8	90.5
	증감률	1.1	5.6	3.6	-15.4	1.8	2.1	-5.5	13.4	-1.1
섬유계	금액	3,129.1	297.7	266.7	249.6	1,579.6	270.7	232.6	236.9	1,435.6
	증감률	-0.4	2.3	-9.7	-0.8	-1.8	-9.1	-12.8	-5.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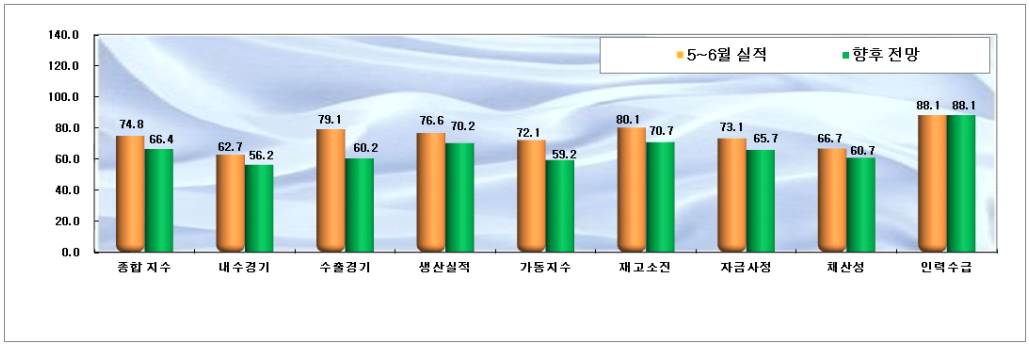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토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가공)

단위 : 수출액(백만불),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4. 기타

○ 대구경북지역의 경기동향모니터를 대상으로 조사(2015.7.6~7.20)한 체감경기는 산업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를 반영한 듯 업계가 느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5·6월 실적이 74.8로 낮게 조사되었고, 향후 전망 또한 66.4로 더욱 더 경기침체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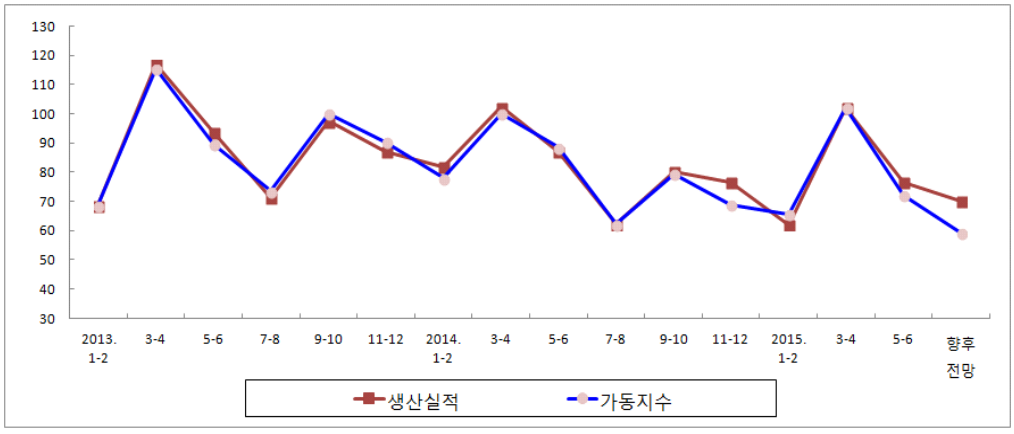
<분야별 실적 및 전망 체감 지수>



○ 5·6월 생산 및 가동지수는 예년보다도 더 떨어진 76.6, 72.1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전망도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가동지수는 업체에서도 59.2로 상당히 어렵게 예상함

<생산 관련 체감 지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2	3-4	5-6	7-8	9-10	11-12	1-2	3-4	5-6	7-8	9-10	11-12	1-2	3-4	5-6	(전망)
생산지수	68.7	116.9	93.7	71.4	97.4	87	81.9	102.3	87	62.2	80.1	76.6	62.1	102.0	76.6	70.2
가동지수	68.7	115.3	89.6	73.5	100	90.3	78	100	88.5	62.2	79.4	68.8	65.7	102.0	72.1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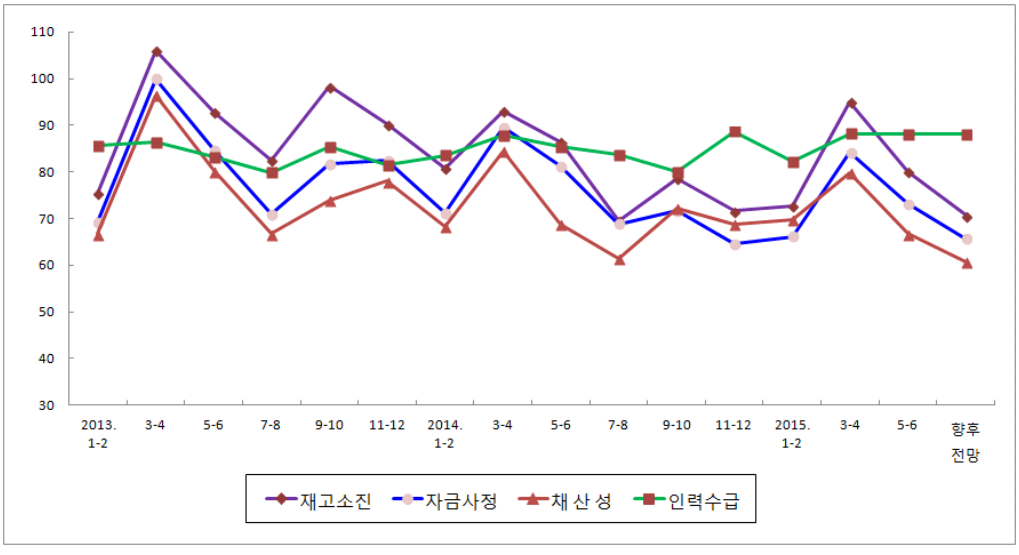
○ 재고소진 : 5-6월의 실적에 대한 지수는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80.1로 나타났으며, 향후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70.7로 조사됨

○ 자금 및 채산성 : 자금사정은 작년보다는 다소 어려웠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채산성도 같이 어려움이 예상됨

○ 인력수급 : 인력수급에 대한 지수는 100이하로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큰 등락 없이 인력부족과 고령화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영 관련 체감 지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2	3-4	5-6	7-8	9-10	11-12	1-2	3-4	5-6	7-8	9-10	11-12	1-2	3-4	5-6	(전망)
재고소진	75.4	106	92.8	82.5	98.4	90.3	80.8	93.1	86.5	69.6	78.7	71.6	72.7	95.1	80.1	70.7
자금사정	69.2	100	84.7	70.9	81.8	82.6	71.2	89.7	81.3	68.9	71.6	64.5	66.2	84.3	73.1	65.7
채 산 성	66.7	96.4	80.2	66.7	74	78	68.4	84.5	68.8	61.5	72.3	68.8	69.7	79.9	66.7	60.7
인력수급	85.6	86.4	83.3	79.9	85.4	81.5	83.6	87.9	85.4	83.7	80.1	88.7	82.3	88.2	88.1	88.1



※ 작성자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송병철 책임연구원(sbc1009@textile.or.kr)

경기북부 섬유업계 동향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상반기까지 침체된 상태임. 국내 대형 어패럴 업체들이 대거 국외로 이전하면서 편직 및 염색기업 대다수가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원료가격은 상승하는데 임가공료 인하압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전통적으로 면섬유 위주였던 물량이 폴리에스터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화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편보다는 경편, 내수보다는 수출물량이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1. 경기북부지역 수출입 동향

○ '15년 상반기 섬유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1% 감소한 377,945천불을 기록

- 주요 수출품목인 직물 또한, 전년 동기대비 16.0% 감소한 317,127천불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 전년분기대비 섬유류 전체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섬유제품은 24.0%로 대폭 감소하여 39,828천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함

○ '15년 상반기 섬유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247,179천불 기록

- 섬유직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40,937천불, 섬유제품은 12.2% 증가한 175,520천불을 기록
- 한편, 섬유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28,960천불을 기록

* 전체적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42.5% 감소한 130,766천불 기록

<경기북부지역 섬유류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수출액	869,768	85,539	79,479	80,459	455,643	71,418	65,952	74,330	377,945
수입액	511,198	44,309	37,984	38,081	227,976	50,598	38,869	38,678	247,179
무역수지	358,570	41,230	41,495	42,378	227,667	20,820	27,083	35,652	130,7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천불,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원료	23,471	1,972	2,079	1,779	12,418	1,839	2,013	2,082	11,119
(증감률)	(22.5)	(35.7)	(14.4)	(44.6)	(15.2)	(-6.7)	(-3.2)	(17.0)	(-10.5)
섬유사	24,586	2,412	2,160	2,409	13,200	1,807	1,369	1,697	9,871
(증감률)	(-7.8)	(9.2)	(-34.0)	(1.1)	(-0.3)	(-25.1)	(-36.6)	(-29.6)	(-25.2)
섬유직물	717,211	71,151	67,261	66,066	377,621	61,447	54,562	61,139	317,127
(증감률)	(2.2)	(12.3)	(-0.4)	(6.4)	(8.3)	(-13.6)	(-18.9)	(-7.5)	(-16.0)
섬유제품	104,500	10,004	7,979	10,205	52,404	6,325	8,008	9,412	39,828
(증감률)	(-14.7)	(-8.2)	(-24.7)	(-14.3)	(-11.5)	(-36.8)	(0.4)	(-7.8)	(-24.0)
경기북부	869,768	85,539	79,479	80,459	455,643	71,418	65,952	74,330	377,945
(증감률)	(-0.0)	(9.7)	(-4.5)	(3.7)	(5.5)	(-16.5)	(-17.0)	(-7.6)	(-17.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불, 전년동기대비 %)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원료	4,811	303	397	601	2,265	267	424	341	1,762
(증감률)	(5.9)	(-4.1)	(-23.7)	(123.4)	(7.3)	(-11.9)	(6.8)	(-43.3)	(-22.2)
섬유사	64,559	6,298	5,154	5,868	32,499	5,477	4,213	5,462	28,960
(증감률)	(4.1)	(6.0)	(15.5)	(19.4)	(13.2)	(-13.0)	(-18.3)	(-6.9)	(-10.9)
섬유직물	79,646	7,047	7,392	6,359	36,817	7,467	7,559	8,184	40,937
(증감률)	(9.6)	(1.9)	(16.6)	(19.1)	(7.5)	(6.0)	(2.3)	(28.7)	(11.2)
섬유제품	362,182	30,661	25,041	25,253	156,395	37,387	26,673	24,691	175,520
(증감률)	(14.6)	(13.9)	(0.6)	(27.1)	(14.9)	(21.9)	(6.5)	(-2.2)	(12.2)
경기북부	511,198	44,309	37,984	38,081	227,976	50,598	38,869	38,678	247,179
(증감률)	(12.3)	(10.5)	(4.9)	(25.3)	(13.3)	(14.2)	(2.3)	(1.6)	(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2. 분야별 동향

□ 편직

○ 경기북부의 니트 생산은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예년보다 작업 물량이 크게 떨어져 전년대비 80% 이하의 오더량을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특히, 수입원단 증가로 편직 오더가 조금씩 줄어들어 현재는 오더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원사수입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으로 판단됨

ㅇ 전반적인 니트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일반 레귤러 조직보다는 특수 조직의 작업비율이 높고, 환편 보다는 경편작업 오더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는 편이며 소재에 관계없이 선염 환편물이 전체 작업물량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염색/날염/가공

ㅇ 염색분야의 경우 염료단가 상승에 따른 염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경쟁적인 오더 수주 속에 가공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생산원가 이하의 임가공료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

ㅇ 염색 오더량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사염물 오더가 소재 구분 없이 꾸준한 상황임. 포염의 경우 트리코트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예년 오더의 5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폴리에스터 염색이 전체의 6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후가공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텐트나 아웃웨어 분야의 경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니트 사염물의 축가공과 기모가공 등 단순 가공의 오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ㅇ 특수 기능성 가공과 관련해서는 이를 소화할 만한 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일반 소규모 기업은 부담이 큰 분야로 작업을 꺼리면서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부 무역업체의 경우 원하는 기능성이 있어도 가공할 수 있는 현장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ㅇ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기준의 강화로 친환경 가공이 최대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원하는 물성과 환경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약품을 사용해야하며, 제조원가가 20%이상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가공료 인상은 미비한 수준으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타산이 맞지 않아 작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작성자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우종형 실장(tipcywoo@koteri.re.kr)

대전충남 섬유업계 동향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15년 상반기 대전충남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한 111,827천불, 수입은 11.2% 감소한 128,854천불로 무역수지 17,027천불의 적자를 기록
섬유류 수출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직물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하였음.

1. 대전충남지역 수출입 동향

○ '15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한 111,827천불, 수입은 11.2% 감소한 128,854천불로 17,027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냄

- 6월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23,085천불, 수입은 6.2% 감소한 23,247천불로 162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냄

<섬유류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수출액	239,854	22,778	19,902	19,704	119,127	19,473	17,504	23,085	111,827
(증감률)	(12.1)	(30.0)	(1.8)	(10.8)	(17.7)	(-14.5)	(-12.0)	(17.2)	(-6.1)
수입액	299,289	28,366	25,045	24,789	145,181	22,368	20,730	23,247	128,854
(증감률)	(1.8)	(8.1)	(-9.5)	(1.9)	(1.8)	(-21.1)	(-17.2)	(-6.2)	(-11.2)
무역수지	-59,435	-5,588	-5,143	-5,085	-26,054	-2,895	-3,226	-162	-17,02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상반기 품목별 수출은 섬유제품(19.1%)이 증가하였으나, 섬유원료(△1.9%), 섬유사(△18.7), 섬유직물(△10.5)은 감소함

- 6월 섬유류 수출은 섬유원료 265천불(△16.9%), 섬유사 3,384천불(△19.2%), 섬유직물 10,111천불(△12.5%)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섬유제품은 9,325천불(156.3%)로 증가하였음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천불, %)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원료	3,191	397	37	319	1,352	240	186	265	1,326
(증감률)	(11.7)	(64.7)	(-91.3)	(-2.7)	(10.3)	(-39.5)	(402.7)	(-16.9)	(-1.9)
섬유사	47,392	3,659	3,520	4,190	23,671	3,589	3,243	3,384	19,245
(증감률)	(40.6)	(42.4)	(10.0)	(87.6)	(53.1)	(-1.9)	(-7.9)	(-19.2)	(-18.7)
섬유직물	141,003	14,298	12,746	11,556	70,302	11,649	10,197	10,111	62,904
(증감률)	(9.1)	(27.5)	(18.5)	(10.3)	(12.0)	(-18.5)	(-20.0)	(-12.5)	(-10.5)
섬유제품	48,268	4,424	3,599	3,639	23,802	3,995	3,878	9,325	28,352
(증감률)	(0.2)	(26.6)	(-30.3)	(-23.3)	(9.4)	(-9.7)	(7.8)	(156.3)	(19.1)
합 계	239,854	22,778	19,902	19,704	119,127	19,473	17,504	23,085	111,827
(증감률)	(12.1)	(30.0)	(1.8)	(10.8)	(17.7)	(-14.5)	(-12.0)	(17.2)	(-6.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상반기 품목별 수입은 섬유직물(10.3%)이 증가하였으나, 섬유원료(△56.7%), 섬유사(△17.3%), 섬유제품(△9.9%)은 감소함

- 6월 섬유류 수입액은 섬유원료 54천불(△95.1%), 섬유사 10,059천불(△3.5%), 섬유직물 4,859천불(19.1%) 섬유제품 8,275천불(△10.0%)로 섬유직물을 제외한 섬유원료, 섬유사, 섬유제품에서 감소세를 보임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불, %)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원료	10,895	720	1,095	1,092	5,082	254	81	54	2,200
(증감률)	(-6.9)	(-11.4)	(-12.8)	(65.7)	(-17.4)	(-64.7)	(-92.6)	(-95.1)	(-56.7)
섬유사	120,605	11,980	10,136	10,428	63,367	9,024	8,896	10,059	52,391
(증감률)	(-2.4)	(13.5)	(-14.9)	(6.6)	(5.6)	(-24.7)	(-12.2)	(-3.5)	(-17.3)
섬유직물	57,185	5,945	4,182	4,079	25,434	4,642	4,743	4,859	28,055
(증감률)	(28.6)	(34.7)	(0.6)	(3.2)	(15.3)	(-21.9)	(13.4)	(19.1)	(10.3)
섬유제품	110,604	9,721	9,632	9,190	51,298	8,448	7,010	8,275	46,208
(증감률)	(-3.1)	(-8.0)	(-8.1)	(-7.5)	(-5.7)	(-13.1)	(-27.2)	(-10.0)	(-9.9)
합 계	299,288	28,366	25,045	24,789	145,181	22,368	20,730	23,247	128,854
(증감률)	(1.8)	(8.1)	(-9.5)	(1.9)	(1.8)	(-21.1)	(-17.2)	(-6.2)	(-1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2. 자카드 업계 동향

○ 자카드 제직업계의 직물생산은 내수, 수출 품목 모두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직기 가동률은 평균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신제품개발 및 설비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올해 초 아프리카 지역 통화가치 급락으로 50% 이상 생산물량을 축소하였던 헤드타이, 다마스크 제품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여러 임직업체에서 생활용 인테리어 직물로 품목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업계에서는 천연 및 기능성 복합소재를 이용한 차별화 직물개발을 통해 신규 아이템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섬유, 전도성 소재 등을 이용한 ICT 융합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기존 한복지, 헤드타이, 인테리어 직물 외에 항공, 선박, 철도, 자동차, 건축 내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작성자 :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한용국 실장(hyk00@hanmail.net)

의류 · 봉제산업 동향

한국의류산업협회

상반기 의류수출은 對일본, 對EU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한 9억 42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의류 수입은 전년도 수입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3.5% 증가한 33억 75백만불을 기록. 상반기 봉제 업체들은 국내 내수경기 불황 및 메르스의 영향으로 성수기임에도 오더 물량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

1. 의류품목 수출입동향

□ '15년 상반기 의류수출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9억 42백만불을 기록

○ 엔화 약세 장기화로 對일본 수출 지속적으로 감소

- 마진 감소로 인한 대일 수출 중단 및 생산처 이전으로 수출 감소폭 확대

○ 對EU 수출 감소폭은 확대된 반면, 對ASEAN 수출은 다소 회복세를 보임

- 유럽의 경기불황 및 유로화 약세로 對EU 수출은 감소했으며, 1분기 부진했던 ASEAN 지역으로의 부분품 수출은 다소 회복세를 보임

<'15년 섬유제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제품	3,618	327	303	320	1,763	310	280	306	1,644
(증감률)	5.5	16	-1.9	6.9	8.5	-5.4	-7.7	-4.2	-6.8
의류	2,044	182	175	193	991	176	168	185	942
(증감률)	6.2	22.5	0.7	6.8	11.6	-3.4	-3.6	-4.1	-5.0
편직제 의류	999	86	81	90	483	85	76	81	457
(증감률)	6.0	20.1	6.1	14.3	13.3	-1.3	-15.9	2.2	-5.4
직물제 의류	1,016	94	92	98	495	89	92	100	475
(증감률)	6.6	24.7	-3.8	-0.6	9.6	-5.6	-0.3	2.0	-4.1
혁의류 및 기타	29	2	2	4	13	2	1	3	10
(증감률)	-3.6	25.0	12.0	58.7	27.8	14.3	-48.5	-21.4	-22.4
기타섬유제품	1,573	145	128	127	772	134	111	122	702
(증감률)	4.7	8.8	-5.3	7.2	4.8	-8	-13.2	-4.4	-9.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의류 주요국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국가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일본	금액	423	43	36	36	224	40	30	27	193
	증감률	11.0	36.9	27.7	26.3	26.2	-6.6	-18.3	-25.6	-13.8
중국	금액	369	33	27	28	168	27	24	30	162
	증감률	-3.6	13.8	-12.6	-19.1	-0.6	-19	-8.7	7.7	-3.9
베트남	금액	365	36	39	45	182	40	44	51	196
	증감률	25.8	49.4	8	15.2	29.8	12.3	13.7	14.7	7.8
미국	금액	267	18	21	27	119	18	22	27	121
	증감률	1.7	-9	-0.7	-7.7	1.3	-2.1	4.7	1.9	1.7
인도네시아	금액	110	11	11	9	58	9	9	9	48
	증감률	11.9	20.5	-1.4	-10.8	7.3	-16.1	-17.2	1.5	-15.9
EU	금액	139	11	11	13	68	11	10	11	58
	증감률	-6.2	26.8	-7.7	10.2	8.6	-0.1	-6.7	-20.2	-14.7
ASEAN	금액	598	57	62	67	298	60	65	72	306
	증감률	19.8	41.8	3.9	13.6	21.1	5.9	4.7	7.3	2.6
세계 계	금액	2,044	182	175	193	991	176	168	185	942
	증감률	6.2	22.5	0.7	6.8	11.6	-3.4	-3.6	-4.1	-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 '15년 상반기 의류수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33억 75백만불을 기록

○ 내수침체에도 불구 전년동기대비 의류수입이 소폭 증가

- 국내생산 여건 악화로 인한 생산단가 경쟁으로 저가의류 중심의 수입이 지속되었으나 전년도 수입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침

○ 상반기 메르스 등 악재발생에 따른 여파로 하반기 수입은 주춤할 것으로 전망

- 상반기 내수 브랜드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재고부담이 하반기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15년 섬유제품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품목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섬유제품	10,474	805	586	625	4,336	783	564	653	4,472
(증감률)	11.8	11.1	3.4	16.2	13.0	-2.8	-3.7	4.6	3.1
의류	8,180	609	390	445	3,262	578	390	459	3,375
(증감률)	12.4	11.5	0.6	21.7	14.5	-5.1	0	3.3	3.5
편직제 의류	2,598	238	151	169	1,146	228	164	186	1,245
(증감률)	9.7	16	-2.4	20	11.4	9	40.6	-0.7	8.6
직물제 의류	5,441	367	233	267	2,084	346	219	264	2,094
(증감률)	14.0	9.1	2.8	24	16.7	-5.7	-5.8	-1.1	0.5
혁의류 및 기타	139	4	6	9	32	4	6	10	36
(증감률)	5.0	-8.2	-4.7	-5	-4.2	5.3	-2	16.7	12.4
기타섬유제품	2,297	196	196	180	1,074	204	174	194	1,097
(증감률)	9.7	9.7	9.5	4.4	8.5	4.3	-11	7.8	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의류 주요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국가		2014년					2015년			
		계	4월	5월	6월	누계 (1~6월)	4월	5월	6월	누계 (1~6월)
중국	금액	3,517	289	209	196	1,442	263	199	215	1,447
	증감률	3.3	3.8	-3.5	8.4	4.7	-9.0	-4.9	9.4	0.4
베트남	금액	2,160	125	66	97	746	127	70	78	779
	증감률	28.4	19.3	14.9	79.9	36.5	1.2	6.9	-20.3	4.4
인도네시아	금액	483	41	20	23	210	39	24	25	222
	증감률	15.8	14	-8.3	18.8	20.9	-5.3	22.8	11.5	6.0
미얀마	금액	462	32	13	19	161	34	9	18	160
	증감률	18.3	22.7	9.6	42.7	23.8	6.4	-29.9	-4.8	-0.2
이탈리아	금액	365	20	16	26	151	18	17	28	158
	증감률	11.9	22.9	10.6	-5.3	9.5	-10.9	7	6.7	5.0
EU	금액	603	32	25	48	250	32	29	52	273
	증감률	13.9	16.9	12.4	7.6	12.6	-0.8	14.5	8.3	9.3
ASEAN	금액	3,409	233	117	159	1,270	230	123	145	1,333
	증감률	23.1	22.1	6.2	52.3	29.3	-1.2	5.7	-8.6	5.0
세계 계	금액	8,180	609	390	445	3,262	578	390	459	3,375
	증감률	12.4	11.5	0.6	21.7	14.5	-5.1	0	3.3	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2. 의류봉제업체 동향

ㅇ 내수시장 경기 불황 및 메르스의 여파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여행이 줄어들면서 동대문 시장의 상권이 침체. 이로 인하여 봉제업체의 기존 주문량을 제외하고는 리오더 및 신규 오더가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제로도 봉제공장들은 성수기 시즌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의 영향으로 2~3개월간 휴업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함

- 동대문 지역의 원단 배달 오토바이들도 눈에 띄게 줄었고, 동대문 원단 상가에서도 디자이너들이 좀처럼 다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임

ㅇ 또한, 봉제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된다는 말과 함께 봉제공장의 기본공임에 대한 하한선도 별도로 정하여 원청업체들의 가격 후려치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함

- 대부분의 원청사들이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품가격을 인상해 이윤을 얻기 보다는 원가 절감 즉, 생산비를 아껴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원청사들이 엉뚱하게도 생산비 절감을 봉제업체로 화살을 돌려 손실 부분을 메우려고 함

ㅇ 반면, 대부분의 봉제업체들은 메르스가 안정기로 들어서면서 여름휴가가 지난 뒤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봉제업체들은 하반기 시즌을 기대하면서도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평소보다 이른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다고 다수의 업체들이 말함

3. ODM개발을 위한 의류샘플 정보

□ 트렌드 샘플

구분	추천 KEY ITEM	
스타일		
	16SS-WSH-20	16SS-MSH-04
주요 내용	ㅇ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템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름 ㅇ 여성복에서는 아방가르드함이 가미된 심플한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며 남성 셔츠의 경우 오버사이즈의 하와이안 플로럴 프린트 등 여성스러운 프린트가 유행	

※ 작성자 : 한국의류산업협회 김왕시 팀장(planning@kaia.or.kr)

저가 의류브랜드, 러시아 시장 진입 확대

KOTRA

- 경제 위기 탓에 중고가 의류브랜드 구매 감소 -
- SPA 브랜드 강세 추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1. 중가 의류브랜드의 경쟁력 하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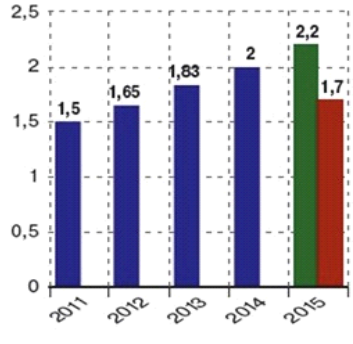
○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경제 위기로 인해 2014년 한 해에만 총 11개의 외국 의류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함. 다리야 야데르나야 Y Consulting사 대표이사는 경제 침체로 인해 2015년 1분기 기준 의류, 신발, 액세서리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함. 이는 일부 외국계 의류 유통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고 밝힘

○ Capital Economics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독일계 아디다스 그룹은 2015년 1분기 러시아 지점의 매출이 2014년 1분기 대비 33%, 순이익은 44% 감소하는 등 재정 지표가 악화됨. 이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200여 곳의 지점을 폐쇄하기에 이름. 이는 러시아 내 아디다스 총 지점수의 20%에 해당됨. 핀란드계 '스토크만'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 내 8개 영업점 중 3곳을 폐점하고 의류쇼핑몰 '린덱스'는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함

○ 루블화 기준 실제 시장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해외 브랜드의 판매액은 감소함. 이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과정까지 통합관리하는 SPA 브랜드의 시장 확장이 활발해지고 있음

2011~2014년 러시아 의류 시장 총판매액(2015년 1분기 기준 전망치)

(단위: 1조 루블)



자료원 : 정보분석 센터 ODNAKO

2. 대기업 저가 브랜드의 시장 확장

ㅇ CBRE의 조사연구부는 중가 브랜드 구매자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대중시장(Mass Market)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인지도가 있는 저가 의류브랜드에게는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함

ㅇ 현재 저가 브랜드 중에는 Cortefiel, Superdry, Violetta by Mango가 2015년 말까지 러시아 시장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한편 이미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는 H&M, Monki, Uniqlo, Forever 21과 같은 브랜드는 임대료가 낮아지는 기회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사를 밝힘

ㅇ 하지만 2014~2015년 사이 철수한 다국적 의류브랜드로는 중가 브랜드인 Chevignon, Gerry Webber, Sepalla뿐만 아니라 대표적 저가 브랜드인 Esprit, New Look, OVS, River Island, Wendy's도 포함돼 있음.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은 매장 규모 면에서 재정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인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저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CBRE 조사연구부에 따르면 러시아 의류브랜드 시장에서 중소업체 저가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국적 브랜드의 2% 수준에 불과함

3. 아시아 브랜드의 시장 확장

ㅇ 유럽, 미국, 일본의 저가 브랜드들이 대규모와 저가라는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입지를 확장 중인 아시아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음

ㅇ 현지 경제 언론 Vedomosti에 따르면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러시아 고객 온라인 주문이 2014년에만 3배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AliExpress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현지 업자들과 함께 자체 물류체계도 마련함. TNS Global의 자료에 따르면 ALiExpress의 러시아 내 순이용자 수는 월 1,750만 명에 달함

4. 시사점

ㅇ 러시아 의류시장에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저가 SPA 브랜드의 강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ㅇ 한국 의류 유통업자들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지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자체 물류체계를 마련한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출처 :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검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중국 섬유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수출입이 활발한 교역국이며, 패션산업 역시 국내외 업체들의 중국 진출 및 내수시장 섭렵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FTA 체결은 섬유산업부터 소비재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에 지난 호부터 한-중 FTA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지난 호에서는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에는 한-중 FTA의 원산지 절차 및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중 FTA의 원산지 절차

(1) 특혜관세 신청 (제3.17조)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서면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하며,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보유, 자국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향후 자료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원산지 증명서 정보가 양국 간에 교환될 경우, 양국 세관당국은 이러한 제출 의무를 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양국 세관당국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필요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입자는 즉시 정정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특혜관세 사후신청 (제3.18조)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관세 또는 보증금의 환급 신청(사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 시에 자국법령에 따라 세관 당국에 미리 신고를 할 경우에만 사후신청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3) 기록보관 의무 (제3.20조)

① 생산자 및 수출자 : 수출 물품 관련 자료(상품 및 재료의 구매가격, 비용, 가치, 지불가격 등)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② 원산지 증명서 보관기간 :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③ 수입자 : 수입에 관한 서류를 자국법령에 따라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자료의 보관 대상은 전자, 광학, 자기, 수기적 방법 등 자국법령에 따라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보관 가능하다.

(4)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3.21조)

수입신고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상의 사소한 불일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5~30근무일 이내에 수입자로 하여금 이를 정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5) 비당사국 송품장 (제3.22조)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송품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반려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2. 한-중 FTA의 원산지 검증[1)]

□ 원산지 검증 (제3.23조[2)])

한-중 FTA에서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방식으로서 간접검증 및 직접검증(방문검증)을 도입하고 있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① 수입자에

---

1) '원산지 사후검증(Verification of Origin)'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①수입국 세관이 자국의 수입자를 통해 수출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②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수출자를 검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인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제3.23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차례대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의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대해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대해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요청, 또는
라. 양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

대한 원산지 정보 요청, ②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 ③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직접검증) 실시를 위해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한 요청, ④ 기타 양국이 정하는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가.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간접검증 요청과 함께 검증 요청 이유,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국 세관당국은 검증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수입국 세관당국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나. 직접검증(방문검증)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동의할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의 안내 하에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직접검증(방문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 실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해 서면 요청을 해야 하며, 수출국 세관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국 세관당국이 방문검증에 대해 동의하나 검증일을 연기(검증 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만 연기 가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의사를 방문검증에 대한 동의와 함께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 세관당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 공무원의 동행 하에 직접검증(방문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결과를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출자, 생산자는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해 이러한 검증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직접검증(방문검증)은 실제 방문일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양국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결정 가능하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 중인 물품에 대해서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유보하나, 이 경우에도 특별히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① 수입자가 30일 내에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② 수출국 세관당국이 6개월 이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③ 간접검증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원산지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수출국 세관당국이 방문검증을 거부하거나 방문검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3. 시사점

지리적 위치 측면이나 교역 규모 측면에서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의 발효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원산지 관련 규정 및 검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FTA 협정과 국내법과의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호에서 다룬 '원산지증명자료의 보관기간'의 경우, 다른 협정에서는 보통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국내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중 FTA의 경우에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 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 / TEL : 02-528-4043/54
※ 작성자 : W관세 컨설팅 최권수 관세사(kschoi@wcustoms.com)

최고의 패션 미디어 인스타그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매년 미국 패션 디자인 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CFDA)는 해당 년도 가장 주목받았던 디자이너와 셀러브리티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패션계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15년 6월 1일 열렸던 2015 미국 패션 디자인 협회 어워드(CFDA)는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패션 장인'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디자이너의 뛰어난 감각' 그리고 '스트릿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새로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패션 리더들과 유명한 셀러브리티들 사이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수상자는 바로 인스타그램(Instagram)이었다. 현존하고 있는 패션계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중에서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비로소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동안 미국 패션 디자인 협회 어워드(CFDA)의 미디어 부분 수상은 대부분 에디터, 잡지 편집장, 혹은 사진작가들에게 주워졌지만 이러한 관례를 깨고 2015 CFDA는 용감하게도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이뤄냈다고 평가할 만한 일종의 '사건'인 것이다. CFDA 위원회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의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런칭된 인스타그램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라는 기본 역할에 다양할 필터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스타그램 CEO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은 "나와 인스타그램 창립자 마이크 크리거(Mike Krieger)는 이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인스타그램이 패션 산업에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마이크 크리거와 내가 배기 스타일의 셔츠와 팬츠를 입고 있는 아주 웃긴 사진들로 가득할 뿐이었고 처음 우리에게 향후 인스타그램과 패션업계가 깊은 관련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단지 과장 혹은 허풍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회상했다.

인스타그램 CEO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이 회상한 것과는 반대로 6년이 지난 지금의 인스타그램은 패션업계를 완전히 바꾸어 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케빈 시스트롬은 “이제 디자이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런웨이 쇼에서 선보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디자이너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는 샤넬(Chanel) 런웨이를 통해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시도와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런웨이쇼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슈퍼마켓으로 구성하고 가능한 많은 디테일들 예를 들면, 샤넬로고가 있는 상자에 포장된 쌀, 쇼핑 카트, 그리고 실제 슈퍼마켓을 옮겨 놓은 것 같은 상품 디스플레이 등 정말 비쥬얼한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런웨이를 슈퍼마켓으로 꾸민 Chanel 2014-15 F/W (출처 : fashionblender)>

과거 런웨이에서 쇼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 명의 모델이 따로 나와서 마지막 파이널 포즈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다면, 현재는 모델들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나와 다같이 포즈를 취하는 것이 대세로 종종 모델들이 그들의 포즈를 유지한 채 관객들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무대 위에 남아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많은 관객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모델들을 촬영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최 측의 배려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전문 포토그래퍼가 아닌 일반 관객들의 사진촬영이 패션 디자이너와 모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유는 바로 일반 관객들이 더 많은 사진 혹은 자신들이 흡족할 만한 사진을 촬영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사진들이 관객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될 가능성 또한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은 이렇듯 크리에이터(Creator)와 소비자 모두가 패션에 대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패션 민주화'를 실현시킨 주역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특정 출판물에 얽매여 있지 않으며 메세지는 완벽하게 시각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개인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해외 패션 블로거인 린드라 메딘(Leandra medine) 혹은 키아라 페라그니(chiara ferragni)와 같은 인스타그램 스타들은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특정 브랜드 라벨을 위한 홍보대사가 되는 중대한 기회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2015 CFDA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진행자였던 영화배우 제임스 코든(James Corden)이 애프터 파티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관객들은 유도해 관객들은 천천히 파티 장소로 이동하면서 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곳에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스마트 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며 사진들은 모두 인스타그램을 통해 널리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인기와 대중성은 '10년 런칭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인기와 더불어 인스타그램은 각종 패션 브랜드들을 위한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패션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들은 일부 유명 블로거들로부터의 포스팅 혹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포스팅을 위해 매년 수 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블로거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혹은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한 번의 포스팅 당 대략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을 지불한다는 루머가 업계에 만연한 정도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포스팅 뒤에는 더 많은 충성도 높은 팔로워들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철저한 기획 기반의 이미지와 촬영 컷 등이 존재한다.

<디올(Dior) 인스타그램 포스팅 (출처 : luxurydaily)>

오늘날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어 버렸고, 이는 상품기획과 소싱 등 과정들 만큼이나 패션업계에서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일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만약 인스타그램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만연한 요즘인데, 과연 브랜드들에게 인스타그램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만약 밤새도록 포스팅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존재감이 사라진다면, 패션업계는 진정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엄청난 영향력을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들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 LA를 기반으로 한 스트릿 패션 브랜드 더 헌드레드(The Hundreds)는 수천만의 팔로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더 헌드레드 공동 창립자인 바비 헌드레드(Bobby Hundreds)는 지속적으로 사진, 인터뷰, 브랜드와 관련된 일화 등 브랜드와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팔로워들과 공유하여 지금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패션업계에 미치는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은 단순히 브랜드나 디자이너 같은 판매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의 최종 소비자인 고객들에게도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은 예상외로 강력한데, 한 패션 블로거는 인스타그램에서 하나의 포스팅 당 1만 5천 달러(한화 약 1,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다니엘 번스타인(Danielle Bernstein)이라는 'We Wore What'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 패션 블로거는 한 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부터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걷어 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다수의 브랜드들이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고백하였다.

22살의 패션 블로거 다니엘 번스타인은 대략 백 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통한 프로모션을 위해 패션 브랜드들은 대략 5천 달러(한화 약 500만 원)에서 1만 5천 달러(한화 약 1,500만 원)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팔로워의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패션 브랜드들이 그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녀의 가장 최근 포스팅은 버진(Virgin)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과 그의 새로운 시카고 호텔 개관식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이 한 장의

사진에도 다수의 브랜드로부터의 제품 및 금전적인 협찬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브랜드 랑콤(Lancôme)과 버진 호텔(Virgin Hotels)이 그 예이다.

다니엘 번스타인(Danielle Bernstein)은 "작년 한해는 저에게 가장 수익성이 좋은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22살의 나이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고,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으며, 대략 1백만 달러(한화 약 1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은 저축 혹은 투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되도록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비록 다니엘 번스타인만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당신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단지 수 백 혹은 수 천 만 명의 팔로워들을 가진 블로거들도 포스팅 당 대략 500달러(한화 약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달러(한화 약 500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셀러브리티들이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벌어들이는 액수에 비하면 이는 아무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셀러브리티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의 이복 여동생 캔달 제너(Kendall Jenner)는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패션 브랜드 제품을 직접 모델링하여 포스팅 하는데 대략 2만 달러(한화 약 2천만 원)에서 100만 달러(한화 약 1억 원)를 대가로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브랜드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포스팅이 패션 블로거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 블로거들은 포스팅으로 인해 팔로워들이 실제 의류제품이나 악세사리의 구매로 연결되었을 때, 브랜드 혹은 패션 리테일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대략 한 달에 8만 달러(한화 약 8천만 원)에 이르며, 블로거들의 역할은 단순히 자신이 포스팅한 제품의 구매 장소와 방식을 자신의 팔로워들과 공유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 자료출처 : 패션넷코리아 Biz Report('15. 7. 27일자)

유관기관 섬유산업 리포트
1. 르네상스를 맞은 美 섬유산업

KOTRA

- 미국 내 섬유 생산설비 투자 활발 -
- 섬유 제조업 회귀와 함께 미국 섬유 수출도 증가세 -

美 전국 섬유협회 연차 주주총회에 따르면 美 섬유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심화되며, 미국 섬유산업이 성장을 보임.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미국 섬유생산시설에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섬유산업 호황의 원인은 경기 회복,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Made in America 운동 등을 들 수 있으며 달러 강세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함

1) 美 섬유산업,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본격 회귀 추세

ㅇ 아시아에 집중돼 있던 미국 섬유 산업이 최근 웨스턴 햄프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추세를 보임

- 미국 전국섬유협회(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美 섬유산업이 최근 하락세를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

-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거시경제적 요인, 운송비용, 에너지 비용, 노동비용의 상승과 미국 웨스턴 햄프셔 지역의 비용 효율성 개선의 영향

ㅇ 美 전국섬유협회에 따르면 13개의 미국과 해외 기업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지역에 섬유 생산시설을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약 3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남

- 美 전국 섬유협회 연차 주주 총회에 참가한 Unifi Inc.는 공장 설비 개선과 최신식 기계 구입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1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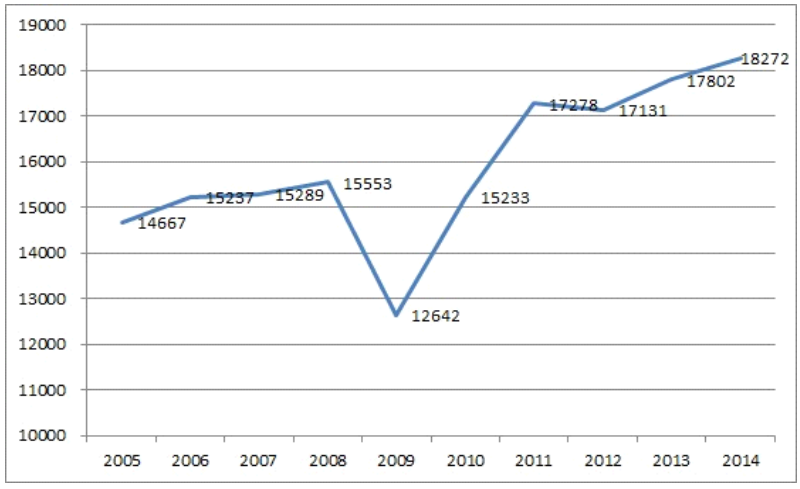
- Inman Mills의 경우 美 섬유산업의 하락세가 지속된 2001년 2개의 공장 문을 닫고 5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최근 다시 살아난 섬유산업 경기에 힘입어 7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설비도 대거 교체

o 섬유생산이 미국으로 회귀함에 따라 미국의 섬유수출은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성장세

- 미국 상무부 섬유의류국(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섬유제품 수출은 182억 7,200만 달러로 126억 4,200만 달러였던 2009년에 비해 45%에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섬유제품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상무부 섬유의류국

2) 달러 강세가 美 섬유산업 호황에 위협으로 작용

o 美 섬유기업들은 유로와 엔화에 비해 큰 강세를 보이는 미국 달러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

o 美 전국섬유협회 연차 주주총회에 참석한 섬유업체는 美 섬유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더라도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

o 미국의 섬유 수입 1위국인 중국은 최근 임금 상승, 높은 가격 변동성, 원사에 대한 높은 관세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미국 섬유산업이 가장 주시해야 할 위협은 환율 강세인 것으로 분석

3) 섬유산업 강세는 미국 경기 회복,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Made in USA 운동 등의 영향

ㅇ Jeff Price 전국섬유협회 의장은 미국 섬유산업이 현재 성장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매우 긍정적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ㅇ Jeff Price 의장은 웨스턴 햄프셔를 중심으로 미국 섬유산업이 성장을 보이는 원인으로 아래 세 가지 요인을 언급

- 미국의 경기회복의 영향
- 웨스턴 햄프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섬유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향상
- 경기 침체 이후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Made in America' 캠페인의 결과

4) 시사점

ㅇ 미국 내 섬유 생산 증가로 인해 한국 수출기업은 그동안 한국과의 주요 경쟁국이었던 저임금 국가뿐 아니라 미국 국내 생산제품과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

- 한국 제품은 저가제품에 비해 품질 경쟁력이 뛰어나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으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갖춘 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미국 섬유 생산의 경우 단순 저가제품보다 단가가 높고 기술 집약적인 기술섬유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술섬유 수출기업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미국 현지 생산을 고려 가능

ㅇ 섬유산업 호황과 함께 미국 섬유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협정 마무리를 위해 원사 기준 원산지 기준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임

* 자료 출처 :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유관기관 섬유산업 리포트

2. 美 의류 · 가정용품 업계에서 '윤리적 생산'이 트렌드로 부상

KOTRA

- 2013년 방글라데시 공장 붕괴사태 이후 Fair Trade Certified 인증 획득한 업체 늘어나-
- 의류뿐 아니라 침대보, 깔개, 담요 등 가정용품에도 확대중 -

1) 의류 및 가정용품 업계에서 윤리적 생산 인증 획득하는 업체 늘고 있어

○ 방글라데시 참사로 의류의 공정무역 중요성 인식 확산

-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의류공장 건물 붕괴사고로 1100명 이상이 숨지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 여건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미국에서 의류의 공정무역(Fair Trade, 주: 상호존중에 입각한 국제무역협력으로 특히 제3세계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든 환경친화적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윤리적 운동을 의미)이 화두로 떠오름

- 커피나 유기농 과일 등이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윤리적으로 생산되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에 이를 구입해야 한다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은 이미 식품시장에서 보편적인 생산 및 유통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건을 계기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패션업계에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의류를 비롯해 침대보, 담요, 깔개(Rug) 등 섬유를 원료로 하는 가정용품(Home Goods) 시장에서 공정무역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됨

○ 방글라데시 참사 이후 공정무역 인증 획득 및 취급하는 업체들 증가

- 1998년 설립된 비정부인증기관인 Fair Trade USA는 커피, 향료, 꽃, 식품, 와인, 립밤 등 30개 카테고리에 대해 공정무역 인증인 Fair Trade Certified를 발행함

- 이 기관은 2012년부터 해외 생산시설의 생산관행, 시스템, 근로자의 현지임금 및 근무환경, 생산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334개의 기준을 적용해 섬유 분야에서 Fair Trade Certified 인증을 발행하기 시작함

- 이 기관에 따르면 해당 인증을 획득한 의류 및 가정용품(Home Goods) 브랜드의 수는 2013년 방글라데시 참사 이전에는 몇 개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0개에 달하는 상황임

- 여기에는 아웃도어 의류업체 Patagonia, 의류 및 가정용품 업체 Under the Canopy, 요가 및 아웃도어 의류업체 Prana 등 다양한 업체들이 포함돼 있음

- 또한 이 기관에 따르면 가정용품 유통업체인 West Elm, Bed Bath & Beyond, 유기농 제품 유통업체인 Whole Foods Market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지난 2년 사이에 Fair Trade Certified 인증을 획득한 의류 및 가정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이 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fairtradeusa.org/products-partners/apparel)

<Fair Trade 인증>

자료원 : Fairtradeusa.org

2) 업체별 동향

○ Under the Canopy

- 이 업체는 Fair Trade Certified 인증을 취득한 캐주얼 의류, 침대보 세트, 수건, 담요, 목욕가운 등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음

- 의류 및 가정용품 업체인 Under the Canopy CEO인 Marci Zaroff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생산과정 변화를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 및 가정용품이 좀 더 대중화돼야 함

- 그는 유기농 식품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의류 및 가정용품도 대중화돼야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함

- 그에 따르면 작년 백투스쿨(Back-To-School) 시즌을 맞아 가정용품 유통업체인 Bed bath & Beyond에서 판매한 침대보 세트가 출시 즉시 매진된 바 있음

- 이는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소비자층이 제품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는 언급함. Zaroff는 밀레니얼 세대가 윤리적 생산과정을 거친 패션제품의 주요 소비자층이라고 말함

- 이 업체는 가정용품 유통업체인 Bed, Bath & Beyond를 통해 유기농 코튼 목욕가운과 침대세트 등 다양한 Fair Trade Certified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인증 취득 제품군을 더 늘릴 계획임

- 또한 Amazon, Wayfair.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해당 인증 취득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군을 다양화할 계획임

<해당 인증을 취득한 Under the Canopy의 제품>

자료원 : Under the Canopy 웹사이트

ㅇ West Elm

- 가정용품 유통체인인 West Elm은 2014년에는 Fair Trade Certified 인증을 받은 14개의 깔개(Rug)를 판매했으나 올 가을에는 이를 30개 종으로 확대하고 13개의 섬유재질 가정용품을 추가할 예정임

- West Elm의 대변인인 Abigail Jacobs는 Fair Trade USA가 의류 및 가정용품을 대량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함

- West Elm은 추후 Fair Trde Certified 인증을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Jacob는 전함

<West Elm이 판매하는 Fair Trade Certified 깔개>

자료원 : West Elm 웹사이트

ㅇ Prana 및 Whole Foods Market

- 요가 및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Prana는 2010년 한 개의 티셔츠에 대해 인증을 받았으나 현재 드레스, 스커트, 남성용 셔츠 등 100개의 제품에 대해 해당 인증을 획득함

- 업체 디렉터인 Nicole Bassett에 따르면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전체 판매제품의 15%를 차지함

- 또한 유기농 식품 유통체인으로 잘 알려진 Whole Foods Market은 2014년부터 Pact Apparel사의 Fair Trade Certified 티셔츠를 15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 제품은 Whole Foods Market에서 가장 잘 팔리는 기본 의류제품임

<Fair Trade Certified Tag이 부착돼 판매되는 Prana의 의류>

자료원 : Fair Trade USA 웹사이트

3) 시사점

ㅇ 코즈(Cause) 있는 제품,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

- 방글라데시 참사 이후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높아지고 Fair Trade Certified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와 Harvard 대학의 공동 리서치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의류에 대해 금액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실제로 더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됨

- Mischigan 대학의 강사인 Ian Robinson은 노동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함

- Fair Trade USA에 따르면 Fair Trade Certified 인등을 획득한 생산시설의 수는 2015년 말에 25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12년에 5개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임

- 대형 백화점 체인인 Bloomingdales의 CEO인 Tony Spring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명분(Social Cause)이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시장전문가들은 Fair Trade Certified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제품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관심을 끄는 사례도 있어

-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의류업체 Everlane은 자사 웹사이트에 해외 생산시설 사진 등 제품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게시함

- 익명을 요구한 이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함

- 고급의류 웹사이트인 Honesty By는 자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함. 예를 들어 320달러에 판매되는 코튼셔츠의 경우 벨기에 공장에서 재단하는데 33분이 걸렸으며 봉제에 145분, 다림질에 10분이 걸렸다고 소개함

- 또한 원단 가격, 버튼 등 부자재 가격, 운송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함

- 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윤리적 생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향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국내업체들, 관련 인증 취득 검토해야

- 기존에 커피 등에만 적용되던 Fair Trade Certified 인증이 의류 및 섬유재료를 이용한 가정용품에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업체들은 관련 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생산과정 및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인증 취득절차와 취득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fairtradeusa.org/sites/all/files/wysiwyg/filemanager/standards/FTUSA_MAN_CertificationManual_V2-0__061314.pdf)

* 자료 출처 :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섬유패션산업 단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ㅇ 정부, 新FTA 추진전략 발표

- 산업부는 지난달 29일(수) '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구체화한 내용의 '新FTA 추진전략'을 발표. 新FTA 전략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Mega) FTA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 체결된 FTA의 개선,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 거대 FTA는 메가 FTA별 협상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아세안・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도 개선할 방침. 아울러,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해, 올해 안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및 에콰도르와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

ㅇ 한-베트남 FTA 연내 발효 전망

- 정부는 지난 5월 5일(화) 정식 서명을 마친 한-베트남 FTA에 대해 빠른 시일내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연내에 한-베트남 FTA가 발효될 전망.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과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 한편, 무역협회는 '한-베트남 FTA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와 원산지 규정의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섬유, 소비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산업용 부직포(HS56039400),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HS 55121900) 등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언급

ㅇ 정부, 한-중 FTA 정식서명 완료

- 지난 6월 1일(월) 한-중 FTA 정식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한-중 수교 23년,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림. 정부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불 개선되며, 고용분야에서는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양국 이해관계자·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한-중 FTA와 관련 국내 섬유패션업계는 완제품인 패션분야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확대로 인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원사, 직물 등 섬유소재 분야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우려

ㅇ 한·독 '섬유 융합 기술연구소' 설립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은 내년 250억원을 투자해 양국에 섬유융합 기술연구소를 설립키로 함. 양국은 오는 10월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MOU를 체결할 계획. '한·독 융합기술연구소'에서는 섬유와 IT를 접목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독일에서는 아헨공대 섬유기술연구소(ITA)가 각각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게 됨. 연구소 입주 지역은 기능성 섬유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경기도에 세워지고, 독일에는 아헨공대 안에 설립될 예정. 경기도는 향후 연구소를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ㅇ '패션산업 컨트롤 타워' 부산에 건립

- 부산시는 패션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시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인근 1천92㎡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1만92㎡ 규모의 '부산 패션비즈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힘. 센터 기능은 △원단, 가공, 디자인, 봉제, 유통 등 원스톱 패션봉제 클러스터 구축, △교육훈련 지원, 상설판매 전시장, 패션쇼장 운영과 아파트형 봉제공장 운영, △신진 디자이너 창업보육,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등 임. 센터 건립에는 정부와 부산시가 50%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모두 336억원이 투입될 예정. 한편, 부산지역 섬유패션산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2013년 기준 2,097개사, 12,700여명으로, 업체 절반가량이 부산진시장 일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K-패션디자인빌리지 포천에 조성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가 최근 'K-패션디자인빌리지' 대상지로 지정. 경기북부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이 사업에는 도비 3천억원과 민자 4천억원 등 총 7천억원이 투입. 50만㎡에 전문 디자이너 창작 공간과 국제패션디자인 학교, 섬유패션 전시장과 비지니스센터 등 패션 관련 융복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 경기도는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6~8개월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비와 조성 방향 등을 정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 한편 K-패션디자인빌리지 조성 사업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6월 낙후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섬유·패션산업을 특화·육성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지난해 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면서 본격 추진

ㅇ '15년 F/W 국내 신규브랜드 동향

-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하반기 신규브랜드는 지난 상반기(16개)보다 크게 증가한 41개로, 시즌당 30개 이상을 런칭하던 작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 예년과 달라진 점은 신규 기획을 통한 런칭보다 모브랜드의 브랜드력을 활용한 라인 확장, 안테나숍이나 편집숍을 통해 매출을 검증받은 브랜드의 단독 런칭이 많다는 점이 특징. 복종별로는 여성복이 수입 컨템포러리 브랜드의 대거 도입으로 가장 많은 11개 브랜드를 선보이고, 패션잡화/제화는 국내 대형 패션업체들이 모처럼 신규브랜드를 런칭하면서 8개를 기록. 애슬레저 트렌드와 골프웨어 시장의 활기로 스포츠/골프/아웃도어가 8개 브랜드를 런칭. 이밖에 남성복은 4개, 캐주얼 3개, 아동복 3개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

ㅇ 무역협회, '15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 국내 75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5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98.4를 기록, 전반적인 수출 경기가 보합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20.0), 선박(117.3)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전분기 대비 보합 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02.2), 수출계약(98.8)은 보합세를, 수출 채산성(88.1), 수출상품 제조원가(88.7)는 부진을 전망.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6.5%)을 지적. 한편,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수출경기 EBSI는 98.9로 보합세를 예상

ㅇ 메르스 사태로 내수 패션, 유통업계 타격

- 메르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으로 패션, 유통업계의 피해가 확산. 6월 첫째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5%, 3.4% 감소했으며, 국내 패션브랜드 업체의 경우 매출이 평균 20~30% 하락한 것으로 알려짐. 동대문의 패션상점가는 내국인 고객이 20~30%, 중국인 관광객은 80~90% 줄었으며, 평화시장에도 하루 500명 이상이 찾던 중국 보따리 상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크게 하락. 한국 방문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13일 기준 10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소비 위축과 해외 인식 악화로 섬유패션업계의 실적 악화가 우려

ㅇ 중소기업청,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

-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 개편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그동안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하로 분류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5개 그룹(120억・80억・50억・30억・10억원)으로 분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업과 소기업 경계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방법으로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임. 개편안에 따르면 섬유제품제조업의 소기업 기준은 80억원, 의복제조업은 120억원 이하가 해당.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13년 기준 국내 10인 이상 섬유패션산업 사업체(5,780개) 가운데, 연간 출하액 100억원 이하는 5,009개사로 86.7%를 차지

ㅇ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 확정

- 정부는 지난달 6월 30일(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 이는 당초 제시안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로 기존 정부 시나리오 3안(△25.7%)을 채택하되, 국제시장 매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추가한 결정임.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존규제의 정비를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09년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선언, 후속조치로 온실가스ž에너지 목표관리제('10), 배출권거래제('15)를 시행하고 있으며, 섬유업계는 목표관리제 23개사, 배출권거래제 15개사가 적용을 받고 있음

ㅇ '14년 세계 섬유수요 3.4% 증가한 9,197만톤

- 미국 Fiber Organon 자료에 따르면, '14년 세계 섬유수요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9,197만톤을 기록. 이 가운데 천연섬유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2,544만톤, 화학섬유(올레핀 포함)는 6,653만톤으로 나타남. '14년 합성섬유(올레핀 제외) 생산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661만톤으로, 합성섬유 가운데 87%의 비중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생산은 5.1% 증가한 4,914만톤을 기록. 합성섬유 국가별 생산은 중국이 6.1% 증가한 3,926만톤으로 전 세계 생산의

69.4%를 점유했으며, 인도가 7.4% 증가한 400만톤, 미국이 1.9% 증가한 203만톤, 인니가 4.8% 증가한 140만톤을 기록. 반면, 대만은 2.1% 감소한 191만톤, 한국은 2.2% 감소한 153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ㅇ '15년 미국 의류 소매판매 전년대비 3.5% 증가 전망

- 미국소매협회(NRF)가 7월 발표한 '15년 미국 소매판매 전망에 따르면, 연초 한파와 서부항만 파업사태,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15년 미국 소매판매가 종전 전망치(4.1% 증가)보다 다소 둔화된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미국소매협회가 발표하는 소매판매는 일반 소매판매액 및 무점포 판매액을 합친 것으로 당초 '15년 미국 무점포 판매는 전년대비 7~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7월에는 6~8% 성장으로 하향 조정함. 하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 주택시장 및 고용시장의 개선, 에너지비용 하락 등으로 소매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미국, 섬유산업 유턴기업 증가로 투자 및 수출 증가

- 美전국섬유연맹(NCTO)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해 있던 미국 섬유업체들이 최근 햄프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임. 미국 섬유산업 유턴기업 증가의 주요 원인은 미국 경기회복, 아시아 지역의 노동비용 및 운송비용 상승, Made in USA 운동 등임. NCTO는 Unifi Inc., Inman Mills 등 13개의 미국 및 해외 기업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지역에 20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3년 미국 섬유산업(의류 제외)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26.1% 증가한 15.6억불, '14년 미국 섬유(의류 제외) 수출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82.7억불을 기록

ㅇ 미국 패션업계, 향후 5년간 시장전망 낙관

- 미국패션산업협회(USFIA) '2015 패션산업 벤칭 마킹 스터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패션산업계는 향후 5년간 시장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TPP와 관련해 회원사 72%가 TPP 발효시 섬유・의류 소싱을 TPP 회원국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 미국 패션업계는 얀포워드 원산지 규정이 TPP 실익을 반감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원산지 규정 예외 품목인 희소품목(Short-Supply List)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향후 2년내 소싱 전망 조사에서는 베트남이 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 12점, 미국 11점, 인니 10점, 방글라데시 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중국(-14점), 대만(-3점), 아이티(-3점) 등은 소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14년 EU 섬유패션 산업 동향**

- EURATEX에 따르면, '14년 EU 28개국의 섬유・의류산업 업체수는 전년대비 0.9% 감소한 172,756개사, 종사자수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1,634천명으로 나타남. '14년 EU 28개국의 역외국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430억 유로, 수입은 8.5% 증가한 995억 유로를 기록. 특히, 수입액 995억 유로 중 섬유 수입은 264억 유로, 의류 수입은 731억 유로를 기록. 국가별 섬유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6억 유로, 터키 45억 유로, 인도 25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 의류 수입은 중국 283억 유로, 방글라데시 110억 유로, 터키 92억 유로를 기록함

ㅇ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세 인하**

-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5년 6월 1일부터 의류, 신발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세를 최대 50%까지 내림. 정장류 및 모피류 수입세는 14~23%에서 7~10%로, 쇼트 부츠 및 운동화 수입세는 22~24%에서 12%로 인하. 그동안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수입세 인하를 지연했으나, 중국내수 소매판매 감소, '15년 들어 7.0%로 둔화된 경제성장률 등 중국 경기침체에 대한 개선책으로 수입세 인하를 단행. 한편,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14년 중국의 럭셔리 제품 소비는 613억불로 이 가운데 55%가 해외에서 직접구매, 15%는 해외에서 중국 소비자들을 위해 대행 구매한 것이며, 30%가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남

ㅇ **아프리카, 의류 생산기지로 급부상**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VF, PVH 코퍼레이션 등 글로벌 패션 업체들의 새로운 의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에티오피아의 지난해 봉제 근로자의 한달 평균 임금은 21달러로 월 평균 임금이 최저 67달러인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도 30% 이상 저렴. ILO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의류업체 근로자의 월급은 155~297불 수준임. 근로자의 저렴한 인건비 이외에도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입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면화를 재배할 수 있어 생산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도 있음. 최근 에디오피아 정부는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2억 5천만불을 투자해 외국 의류업체 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짐

섬유패션산업관련 단체 현황

소 속	성 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기학	회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135-846	02-528-4001	02-528-4074
대한방직협회	김 준	회장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17길 47-1 대한방직협회 신관(4층)	110-111	02-735-5741	02-735-5748
한국화섬협회	박승훈	회장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9층	110-756	02-734-1191	02-738-0111
한국의류산업협회	최병오	회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135-846	02-528-0101	02-528-0120
한국패션협회	원대연	회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5 성수에이펙센터 901호	133-120	02-460-8356	02-460-8350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윤성광	회장	서울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1206호	142-703	02-752-8097	02-755-6994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재권	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08호	150-873	02-780-4478	02-780-4728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이의열	회장	대구시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동구 팔공로 227) DTC 3층	701-170	053-580-2000	053-560-6505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최현규	회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8-10번지 마젤란21 아스테리움 602호	135-880	02-548-2131	02-3444-9929
한국모방협회	김인성	회장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오피스텔 1221호	135-744	02-702-5627	02-702-0477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박호생	이사장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83번지	703-712	053-560-6551	053-560-6559
한국패션소재협회	이영규	회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0 우성리빙텔 301호	135-270	02-576-7247	02-576-7230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박만영	회장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57번지 부산디자인센터 702-2호	612-022	051-744-6321	051-744-6320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서석홍	이사장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708호	110-738	02-741-7801	02-741-7851
한국섬유수출입조합	민은기	이사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빌딩16층	135-846	02-528-5158	02-528-5188
대한제면공업협동조합	김홍식	이사장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006호	121-040	02-702-6678	02-702-6612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구평길	이사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골든타워빌딩 1513호	120-722	02-365-2332	02-393-5098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최영주	이사장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2번지	130-070	02-3668-3020	02-3668-2900
KOTITI 시험연구원	김정수	이사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7	462-807	02-3451-7001	02-3451-7170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김만식	이사장	전북 익산시 석암동 639번지	570-330	063-830-3500	063-830-3540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정호문	이사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38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121-021	02-717-3191	02-718-3192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김형석	이사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9-1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100-095	02-755-9034	02-773-2260
FITI 시험연구원	윤성광	이사장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번지	130-864	02-3299-8111	02-3299-8161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이동만	회장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길 13 맞춤양복회관 301호	100-828	02-2237-5700	02-2237-5703
(재)한국컬러&패션트랜드센터	백형일	이사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1-11 남도빌딩 5F	137-070	02-549-2361	02-549-4745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이동렬	회장	경기도 안산시 사3동 1271번지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자인교육관 4층	456-756	031-675-7694	031-675-7622
DYETEC 연구원	한상우	이사장	대구시 서구 평리6동 404-7번지 한국염색기술연구소	703-834	053-350-3704	053-350-3818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	김경암	이사장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20-20 타올회관 4층	100-015	02-2275-9381	02-2277-0896

섬유패션산업 동향

발 행 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 www.kofoti.or.kr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대치동) 섬유센터 16층
전 화 : 02-528-4025
발 행 인 : 성기학
편 집 인 : 윤수영
발 행 일 : 2015. 8. 10

〈비매품〉